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 산업

제 1187 호
(2025년 11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원양선원 유해 인도식 개최 / 04
- 2025 수산 CEO 초청 세미나 주최 / 05
- 협회,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 / 06
- 협회, CCAMLR 제44차 연례회의 참석 / 07
- 협회, 제3차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참석 / 0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09



이달의 요리

- 콩치김밥 / 15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44달러 / 16

■ 참치어업 동향

- 2026 CCSBT 쿼터 유지 확정 / 17
- 中 WCPO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추진 / 17

- 日 신선 참치 수입 감소 원인 분석 / 18
- 에콰도르 2024년 참치 가공 물량, 태국에 근접 / 20
- 中, 어떻게 주요 참치 어업 국가가 되었나 / 21
- 日, 2025년 9월 냉동 다량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3
-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에 의문 제기 / 24
- EU, 식용 참치 수입 시 냉동 관련 규정 강화 / 25
- EU 강제노동규제, 참치 산업에 미칠 영향은? / 26
- 인니, 남방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 요구 좌절 / 27
- 中 건조 선망선, WCPO에서 영향력 확대 / 28
- EU 업계, EU-태국 FTA 참치 통조림 제외 재차 촉구 / 29
- 태국 2024년 자숙 로인 수입 증가, 중국산 주도 / 30
- 日 참다랑어 양식 이종고에 부딪혀 / 31
- 타이유니온, 약 6억 달러 규모 '블루본드' 발행 성공 / 32
- WCPO 선망어업 8월 전채량 증가 / 33
- 에콰도르 선사, 스페인 참치 어선 인수 예정 / 33
- EU 2025년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출, 5년간 최고치 / 34
- EU, 상반기 동안 자숙 로인 수출 증가 / 35
- 2024년 대서양 참치 어획량, 매우 낮은 수준 / 36
- 태국, 어업법 개정안 통과...원양어업 규제 철폐 등 포함 / 37
- 中, 황다랑어 양식 개시 / 37
- 대서양 2024년 황다랑어 어획량, 전년도 수준 / 38
- 트럼프 무역전쟁, 베트남 참치 무역에 큰 타격 / 39
- 캐나다 언론, 참치 관련 NGO 주장 맹비판 / 40
- 월마트재단, 참치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투자 / 41

원양산업 제1187호 발 행 2025년 11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 김 영 규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中 원양어선단, 칠레 북부 해역서 활동 확대 / 42
- 日 언론, 오징어 관련 동향 분석 / 43
- 中 적도오징어 가격 횡보 추세 / 44
- 日 무라사키오징어, 최근 보기 드문 어획량 기록 / 44
- 칼라마수르, EU에 오징어 IUU 관련 조치 촉구 / 45
- 페루, 번식기 대양오징어 보호 목적 금어기 시행 / 45

■ 명태어업 동향

- 美, 알래스카 명태어업 청어 혼획 한도 상향 검토 / 46
- 명태의 숨은 함: 건강·안전·경제성 / 46
- 러 명태 필렛 가격, EU 관세 반영 시 미국산과 동등 / 47
- 지정학적 충격으로 대구·해덕대구 사상 최고가 / 48
- 대구, 더 이상 서민 생선 아니다 / 49
- 中 대구 시장, 고가 행진으로 2026년에 둔화 예상 / 50
- 2026년 바렌츠해 대구-美 명태 공급 등 감소 예상 / 51
- 러시아 북부 대구 TAC, 5년 연속 20% 감축 / 53
- 美 베링해 연안 B시즌 명태 쿼터 미소진 / 53
- 美 알래스카 명태, 2026년에도 견고한 가격 예상 / 54

■ 공치어업 동향

- 日, AI 활용 공치 크기 예측 서비스 도입 예정 / 55
- 中 선단-대만 선단, 공해 공치 어업 종료 / 55
- 日 공치 어획량, 10월 18일 시점 약 4만 톤 / 56
- 日 개센누마 공치 어획 전년 대비 3배 급증 / 56

■ 각국 수산 동향

- 러, 중국산 수산물 수입 25% 증가 / 57

- 제재 문제로 노르웨이-러 바렌츠해 쿼터 불투명 / 58
- 러 제재 확대, 페로제도 수산업 불안 야기 / 59
- 美 외식 소비자, 소고기 대체재로 수산물 주목 / 60
- 日, 세계 1위 어업국에서 수입국으로 / 61
- 美 MZ·Z 세대, 수산물 소비 동향 이끈다 / 62
-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수산물 무역 재편 / 63
- 러, 수산가공산업 구조 전환 가속 / 64
- 러, 어업·가공업의 회복세 뚜렷 / 64
- 日, 수산물 자급률 52%로 사상 최저 기록 / 65
- 러 어선단 현대화 정책, 현실적 제약 직면 / 65
- 美, 수산물 소비 25년째 제자리 / 66
- 세계 해양 점진적 기능 상실 경고 / 67
- 세계 수산물 생산 70년간 10배 증가 / 68
- 러 수산업 수익성, 4년 만에 63→26% 급락 / 69
- 러, 선령 40년 제한 시 500척 퇴출 위기 / 70
- 러 수산업, 행정 및 재정 부담 완화가 생존의 관건 / 71
- 통조림, 생존식에서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 72
- 수산물 소비, 제공 형태에 달려 있어 / 73
- 러, 2025년 어획량 전년 대비 최대 5% 감소 전망 / 73



쉬어가는 난

- 그리운 바다 - 존 메이스필드 / 74



국내 수산 정보

- 10월 오징어 국내 동향 / 75
- 10월 명태 국내 동향 / 77
- 우리나라, 남극 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외상 공고히 해 / 79

협회, 원양선원 유해 인도식 개최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 3위(位), 유족 품에 안겨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남태평양 아메리칸 사모아 묘지에 안장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선원 유해 3위(位)를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및 유해 인도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도식은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어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선원의 유해를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 협회는 우리 원양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관리 사업'을 통해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수리남 등 7개 나라

에 있는 275기의 원양어선원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해외 선원묘지에 안장된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유족을 대상으로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3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9위의 유해를 이장하였다.

앞으로도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원양선원 유해를 유족의 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 수산 CEO 초청 세미나 주최

수산물 수출 전략 고도화, 국제사회 역할 강화 논의



우리 협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회의실에서 '2025 수산 CEO 초청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신정부 출범 이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수산물 수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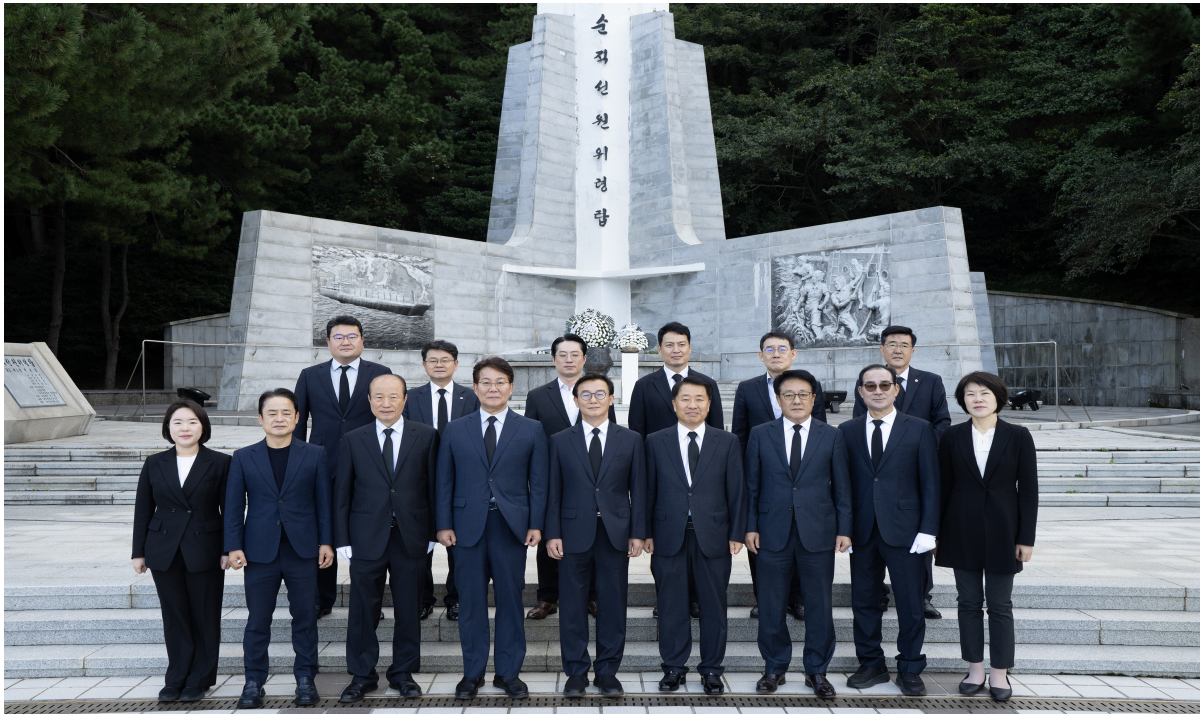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참손푸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회장과 양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조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순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장이 '신정부 국정과제와 미래 양식산업 구조 혁신'을,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기욱 센터장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의 수산물 수출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 주제로 수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수산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력난 심화 대응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전략 등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협회,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

순직선원의 영령 추모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2일 순직선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영도구 동삼동 ‘순직선원 위령탑’을 참배하였다.

이날 위령탑 참배에 참석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해상 근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안타깝게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금 이시간에도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헌신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고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순직선원 위령탑은 순직 선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9,349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협회, CCAMLR 제44차 연례회의 참석

100% 규범 이행국으로, 우리나라 제안서 단독 채택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제44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극지연구소, 동원산업, 정일산업, 티엔에스산업, 흥진실업에서 참석하였으며, 협회 해외협력2부 최상진 주임, 국제협상지원팀 이승은 전문관이 참석하는 등 총 25명의 대표단(비대면 참석 8명 포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4/25어기 협약구역 이행위반 지적사항, '25/26어기 업종별 시험조업 및 과학조사 신청, 해양보호구역 신규 설립, 48.1해구 크릴어업 관

리 접근방식 시행, SISO 옵서버 승선 의무화, 모든 어종 100% 항구 검색, VMS 정보 제출주기 단축, 어구 회수 지연 시 추가정보 제출, 운반선 관리강화, 이행평가 분류 항목 추가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규범 이행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운반선 관리강화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은 총회 부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과학위원회 제1 부의장이 되며 우리나라가 국제협력과 국익 기여를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협회, 제3차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참석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이행 실적 점검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민관 이행 점검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이정로 과장, 장순길 사무관 외 1명, 원양산업과 류시연 주무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점순 노정팀장 외 1명,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김열임 팀장 외 1명, 공익법인센터 어플 정신영 변호사 외 2명, 환경정의재단 정우진 캠페이너가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3분기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로, 기관별(해수부, 원양협회, 부산해수청)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대외협력, 근로감독관 인력충원,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NGO 및 각 기관과 인권 관리체계 및 근로환경개선에 적극 소통하겠다고 알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다카르항, 친환경 항만 선정

- 세네갈 다카르 항만청(PAD)이 세계은행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로부터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선정됐다. 이에 이어 친환경

경 LNG-이중연료 RoRo선 'L'Océan Breeze'가 첫 아프리카 기항을 완료했으며, 최대 7,500대 (CEU) 적재가 가능하다.

- Sallaum Lines의 나탈리 살룸 이사는 다카르 항을 "글로벌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점"으로 평가하며, 서아프리카 해상 물류 중심이자 친환경 해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775
	3.4~10kg	1,675
	1.8~3.4kg	1,575
	1.5~1.8kg	1,425
	1.5kg 미만	1,225
눈다랑어	10kg 초과	1,425
	3.4~10kg	1,425
	1.8~3.4kg	1,425
	1.5~1.8kg	1,275
	1.5kg 미만	1,075
가다랑어	3.4kg 초과	1,625
	1.8~3.4kg	1,575
	1.5~1.8kg	1,425
	1.5kg 미만	1,225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류/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50	'25.10.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피지, 어업법 개정

- 피지 의회는 불법어업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특정 위반사항에 대해 어업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80년 된 기존 법률을 대체해 현대적 기준과 국제 모범사례에 맞춘 어업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 피지 수산 장관은 이번 법안이 850개 이상 해안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와 생계 보호에 핵심적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어획 관행과 자원 남용 방지를 통해 지역사회와 자원 소유자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피지, 태평양 무역 경쟁력 강화

- 피지 총리는 세계은행 지원 아래 진행되는 태평양 국가전환 프로젝트와 무역·물류 가속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관 현대화, 물류 개선, 지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등 6개국에 참여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공급망 병목 완화, 운송비 절감, 통합된 태평양 무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총리는 무역 경쟁력은 속도, 투명성, 정보 접근성에 달려 있으며, 디지털화가 이를 실현하는 핵심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은 세계은행과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다. 피지, 해양보호 협력 강화

- 피지는 참치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산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서·중부 태평양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어장 중 하나이며, 공유 참치 자원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장관은 이러한 성과가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역 국가 간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피지는 국가별 할당량 준수, 특정 어장 폐쇄, 상어·거북 등 멸종위기 종 보호 등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꾸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9회 태평양 참치포럼을 통해 지역 수산청, SPC, InfoFish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피지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보호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라. 피지, 현지 가공 강화

- 피지 수산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약 150만 톤의 참치가 어획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가공되어 일자리와 수입 기회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치 가치사슬 전반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피지를 태평양 어업 허브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피지와 파푸아뉴기니가 공동 주최한 제9회 태평양 참치포럼에서는 혁신, 형평성, 지속 가능한 무역이 태평양 어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의제로 강조됐다.

마. 일본 간 경제·개발 협력 심화

- 피지와 일본 간 협력 관계가 무역·투자 사절단 활동과 피지의 2025 오사카 엑스포 참여 이후 더욱 강화됐다. 이번 사절단은 시장 접근성 확대, 양질의 투자 유치, 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한 피지 정부의 경제외교 전략 핵심으로 추진됐다.
- 재정·산업개발부 장관은 피지 대표단이 일본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기후 회복력, 디지털 연결성, 농업 현대화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으며, 일본이 피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피지 총리는 다음 달 일본 정부와 일본-피지-로마바타 파트너십(Romabata Partnership) 협정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교류는 피지를 개방적·투자 친화적·지속가능한 태평양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피지 총리, 지속 가능 무역·투자 강조

- 피지 총리는 태평양-ACP 및 포럼 무역장관회의에서 지역 장관들이 2050 블루 태평양 전략에 맞춰 광범위한 무역·투자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번 회의가 무역 긴장,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국제 경제 재편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EU 협력과 태평양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프로그램(PTSDP) 등 주요 이니셔티브가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 총리는 이번 논의가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기업 발전과 지역 무역 성과를 연결하고,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는 태평양 회원국들이 EU와 무역·개발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 지속가능 성장과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는 핵심 협력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사. 피지, 참치 산업 가치사슬 강화

- 피지 부총리 겸 관광·민간항공부 장관 빌리암 가보카는 제9회 태평양 참치포럼에서 태평양 지역 리더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지역 협력과 참치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태평양 경제, 문화, 지역사회의 생명선임을 강조하며, 서·중부 태평양이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임을 언급했다.
- 올해 포럼은 ENBi(동뉴브리튼 이니셔티브)를 기반



으로 지역 가공 허브 구축, 프리미엄 브랜딩과 시장 접근성 확대, 혁신과 인프라 개선, 고용 창출 등 참치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총리는 또한 과학적 근거와 강력한 거버넌스, 연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참치 관리에서 태평양 지역이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아.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500	로인가공용(PAFCO)

자.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65	'25.11.11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니, 美 새우 수출 성공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을 위한 공식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자바와 람퐁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새우 제품은 KKP가 발급한 품질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 이번 지정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수입경보 제 99-52호(Import Alert 99-52)에 따른 조치로, 원산국의 공인기관이 발급한 '세슘-137 오염 없음' 인증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입 제한이 아닌 추가 인증 요건이며, 자바·람퐁 외 지역의 수출은 기존 절차를 따른다.

나. 해양·육지 통합 계획 가동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과 육지의 공간계획을 통합

하는 One Spatial Plann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공간 이용 갈등과 정책 중복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블루이코노미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 해양공간 이용에 행정 제재 조치 시행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서파푸아 소롱 지역 사오카(Saoka)에서 무허가 해양공간 이용 활동을 중단했다. 해양·도서특별경찰 조사 결과, 관련 기업들은 해양공간이용활동 적합성 승인서(PKKPRI) 중 전용부두 지정 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자원감독총국은 10월 30일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전용부두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인니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 인허가 준수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1,050	'25.11.4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 열파로 어업 피해 우려

- 뉴질랜드 해역에서 해양 열파 발생이 빈번해지며 생태계와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arth Sciences New Zeal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2~2022년 사이 해수면 온도는 10년당 0.2~0.3℃, 해저 온도는 약 0.1℃ 상승했으며, 특히 뉴지 동부해·태즈먼해·채텀 라이즈 인근의 온난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수온 상승과 해양 열파 지속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어종 분포 이동과 일부 어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MBIE Endeavour Fund 지원을 통해 해양 열파 조기경보 시스템과 탄력적 어업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어업, 해양산업, 원주민 공동체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링)	3L	5,550
	2L	5,550
	L	5,150
	M	4,5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955	'25.11.4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광범위 해양보호구역 공식화

- 모리셔스 정부는 약 64만 5천km² 규모의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CAMPAs)을 공식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고스 지역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재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전면 금지된다.

- CAMPAs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기준에 따라 네 구역으로 나뉘며, 일반 보전 구역은 수산물과 산호, 해양 생물을 보호하며 전통적 방식의 지속 가능한 어업만 허용된다. 전통 재정착 구역은 주민 거주와 생태 보전을 조화시키고, 엄격 보전 구역은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 방문만 가능하

며, 서식지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적 소규모 전통 어업과 관광이 허용된다.

- 이번 지정은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권리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 마련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 인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인도는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를 발표하고,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모니터링, 공항 관제탑 건설, 도로 확장 등 인프라와 안보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해양 안보, 국방, 보건·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모리셔스의 차고스 제도 주권을 재확인하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디에고 가르시아 인근 해역 문제도 반영한다.
- 모리셔스 정부는 인도의 지원을 미래 공동 투자로 평가했으며, 인도는 EEZ 관리, 해양 자원 개발, 공동 해저조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양 구축과 지역 내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Shell	MGO	800	'25.11.13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고가 어종 수출 증가

- 2025년 1~9월 수산물 수출은 전체 성장률 0.6%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통새우 수출 53% 급감이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오징어 수출은 48% 증가하며 가격 상승과 함께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 필레는 소폭 감소했지만, 평균 가격을 유지했고, 이빨고기



와 킹크랩 등 고가 어종은 판매량과 단가 상승으로 총수익이 47.3% 증가하며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나. 연골 어종 보호 조치 시행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공유하는 공동 어업 구역에서 상어, 가오리 등 연골 어종 보호를 위해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바닥 트롤 어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번식 지역 보호와 자원 회복을 위한 연골어류 실무 그룹 권고안을 반영했으며, 위반 시 양국 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한 구역 지정과 결의안 공시는 리오 데 라 플라타 연안 자원의 지속가능 관리와 과학 협력 강화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190	'25.11.7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가나, 선원 비자 정책 복원

- 가나 해사청(GMA) 청장 Ali Kamal Deen은 미국이 최근 선원 비자 정책을 복수비자로 복원한 것을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비자 제한이 가나 해운 산업을 거의 마비시킬 뻔했으며, 가나가 세계 선원 공급 상위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 미국은 올해 7월 5년 복수비자에서 3개월 단수비자로 변경했으나, 최근 다시 복수비자로 복원했다. Kamal 청장은 또한 브라질의 선원 입국 카드 제도 전환으로 가나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조업제한구역 강화로 자원 및 어민 보호

- 가나 정부는 소규모 어업 생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산 및 양식법」을 제정하고, 조업제한구역(IEZ)을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산란장과 소형 어종 자원을 보호하고 상업어선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상업어선에는 영상·센서·GPS 기반 전자모니터링시스템(EMS) 설치를 의무화해 규정 준수를 실시간 감시하며 벌금 등 처벌도 강화했다.
- 수산위원회는 자원 관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EU의 '옐로카드' 해제를 위해 수출 규정 준수도 강화했다. 가나 국민 단백질 공급의 60%가 어류인 점에서 이번 법은 식량안보와 소규모 어민 생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업어선 비용 증가, 단속 실효성 부족, EMS 확대 지연 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다. 가나, 지역사회와 해양자원 관리 강화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양성평등 인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새로운 협력 의지를 촉구했다.
- 이번 발언은 Hen Mpoano(NGO)가 주관한 '어민과 함께, 어민을 위해(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이루어졌다. GRC 프로젝트는 소형 어업 공동관리 강화, 지역 어업 감시체계 구축, 해양보호구역(MPA)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어업 거버넌스에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노르웨이 대사와 Hen Mpoano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여성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관리의 전국적 모델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출범은 정부, 시민사회, 국제 파트너 간 협력을 상징하고 가나 블루이코노미 구축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000
	10kg 이하	1,600
가다랑어	3.4kg 초과	1,400
	1.8~3.4kg	1,350
	1.5~1.8kg	1,200
	1.5kg 미만	1,05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80	'25.10.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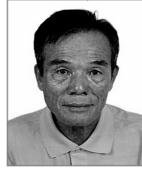
가. 해삼, 지속가능성 문제 노출

- 2025년 남태평양 해삼은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PNG와 솔로몬 등에서 약 1,400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을 합치면 3,000톤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되며, 가격은 평균 20~30% 하락했다.
- PNG 해삼 어업은 관리 부재와 불법 거래로 자원 고갈 위험이 높으며, 중국 상인의 단기 이익 추구하고 현지 규범 무시는 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정책 단절 등 구조적 문제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82	'25.11.10

허성림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허성림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2톤, 황다랑어를 평균 0.3~0.5톤을 어획하여 전월 대비 부진한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600
가다랑어	라운드	1,4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94	'25.11.6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공치김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공치캔 1캔(300g), 김밥김 2장,
현미밥 400g, 참기름 10g, 소금 3g,
청상추 6장, 깻잎 6장, 참깨 5g,
생와사비 10g,
- 소스: 진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설탕 2큰술,
생수 1컵, 생강 1쪽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진간장, 맛술, 설탕, 생수, 생강을 넣어 간장 소스를 만든다.
- ② 냄비에 ①번의 간장소스와 공치를 넣어 윤기가 나도록 중, 약불에 졸여준다.
- ③ 현미밥은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해준다.
- ④ 김밥을 준비하고 김 → 현미밥 → 상추3장(깻잎 3장) → 공치 간장조림 → 생와사비 → 참깨 순으로 넣어 동그랗게 말아주면 완성
- ⑤ 한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는다.



1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44달러

11월 7일 기준 763달러

11월 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93달러, WTI 가격은 60.08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3.98달러를 기록하였다.

동일 날짜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63.25달러로 전월 동기 평균 가격인 680달러 대비 12.2% 상승하였다.

11월 평균(11.1~11.7) 가격은 744.30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92.95달러 대비 약 7.4% 상승하였다. 전년 11월 평균인 674.70달러보다 10.3% 상승하였고, 지지난해 11월 평균인 800.83달러보다는 7.1%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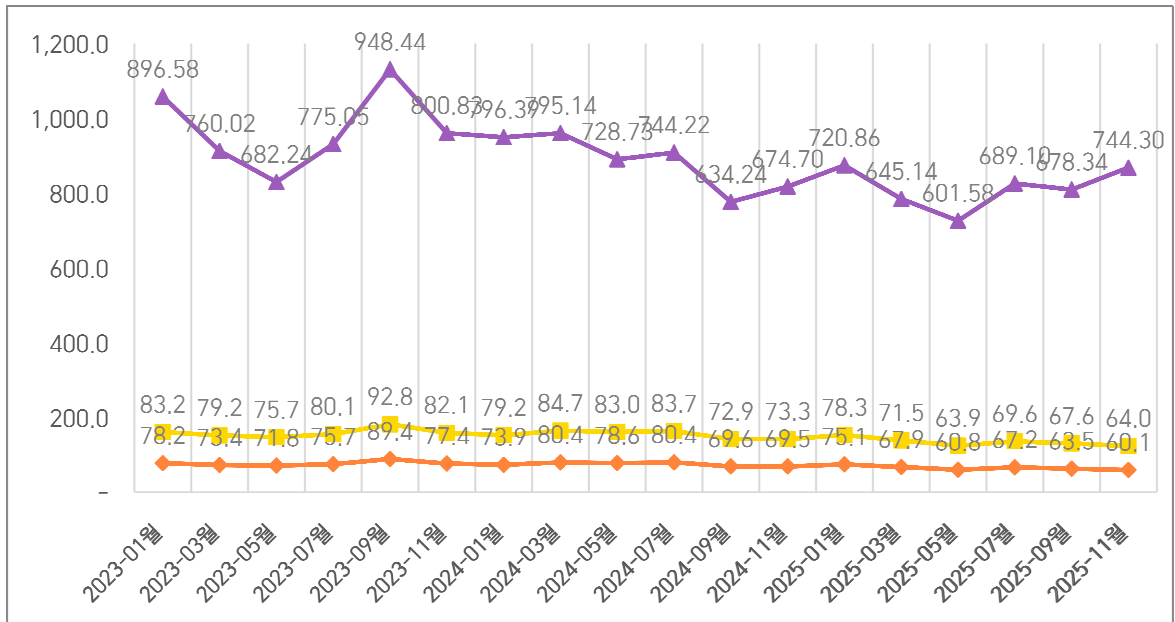
한편, 2025년 평균(1.2~11.7) 가격은 667.12달러로 전년(1.2~11.7) 평균인 737.31달러 대비 9.5%

하락하였고, 지지난해(1.3~11.7) 평균인 809.96달러 대비 17.64% 하락하였다.

11월 초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비OPEC 산유국의 공급 증가, OPEC+의 감산 완화 등으로 인하여 유가 상방 압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계절적 요인 등이 가격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구조적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 요인으로 당분간 약세 기반의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원양 업계로서는 최근의 MGO 가격 상승이 단기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월별 유가 평균 가격(위에서 아래로 싱가포르 MGO, Brent, WTI 순) >





2026 CCSBT 쿼터 유지 확정

배분 갈등은 지속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회원국들은 2026년 총 허용 어획량(TAC)을 2만 647톤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27~2029년 TAC 확대 및 추가 어획량 배분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번 결정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향후 할당 비율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7~2029년 관리 계획은 2026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기존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의 쿼터는 7,295톤으로 설정된다. 이 중 21톤은 인도네시아에, 27톤은 남아공에 매년 이전된다.

현행 2024~2026년 체계는 2023년에 확정되었

으며, 내년까지 유효하다. CCSBT 과학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TAC를 3,000톤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간 추가 어획량 분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논의로 연기되었다.

수산청 측에 따르면,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자국 할당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나는 약 6%인 기존의 배분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27년부터 3,000톤의 고정 할당량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다음 CCSBT 연례 회의는 2026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며, 회원국은 2027~2029년 할당 계획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4일자

中 WCPO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추진

WCPO 다랑어류 대상 평가 돌입

중국 수산기업 저장오션패밀리(Zhejiang Ocean Family)가 중서부태평양(WCPO)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어업에 대한 MSC 인증 취득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심사기관인 SCS 글로벌 서비스는 지난 10월 중순 동 어업에 대한 평가 초안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평가 대상이 되는 선박은 총 9척이며, 이 중 4척이 중국 국적, 5척이 키리바시 국적이다. 동 선단은 FAD와 부상군 조업(free school sets)으로

참치를 어획한다.

중국 국적 선박은 저장오션패밀리가 관리하며, 키리바시 국적 선박은 '키리바시 참치어업 유한회사(Kiribati Tuna Fishing Company Limited)'가 관리한다. 해당 선단은 2024년에 가다랑어 5만 4,237톤, 눈다랑어 3,157톤, 황다랑어 186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1일자



日 신선 참치 수입 감소 원인 분석

공급 감소, 환율 문제 등 복합적 영향

일본의 신선 참치 수입은 항공 화물 용량 감소, 신선 참치 공급의 급격한 감소, 엔화 약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은 현재 외국산보다 일본산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선 참치 수입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봉쇄에 들어갔고, 식당, 전통식 회 공급망 및 기타 식품 시설들이 문을 닫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시장에 일반적으로 최소 30개 산지에서 매일 신선 참치가 조달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경매장이 문을 닫았고, 항공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본으로 신선 참치를 배송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전용 전세기를 통해 일본에 계속 공급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등 대형 항공기들은 더 이상 괄과 일본 간 노선을 운항하지 않았다. 괄의 일본 운영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괄과 대만 간의 노선도 폐쇄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 화물 용량은 팬데믹 이후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반 항공 화물 운영사 아틀라스 에어(ATLAS Air)의 CEO 마이클 스티븐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약 630대의 대형 와이드바디 화물기(통

로가 2개이며, 통상 화물칸에 ULD 용기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의 대형 화물기) 중 최대 150대가 25년 이상 노후화되어 은퇴 시기가 임박하였거나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신선 참치 공급 급감〉

수산 전문가 모리스 브라운존은 일본 신선 시장의 신선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수입 감소의 다른 요인들을 지적하였다. “2020년, 팔라우의 국가 해양 보호 구역 80% 폐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300톤에 달했던 팔라우의 대일 신선 참치 수출이 중단되었다. 팔라우는 그전까지 일본의 단일 최대 신선 참치 공급국이었다. 대만 선단의 어획물을 전세기로 운송하여 팔라우에서 하역 및 수입한 후 일본으로 배송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 말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대만 선단으로부터의 공급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브라운존은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한 채 조업은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형 선사들은 일본 시장을 포기하고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운영을 재조정하였다. 대형 무역업체에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가격이 낮고, 환율이 불리하며, 일본 시장의 수요도 낮다는 것이다.”

태평양 선단들은 신선 어류 수출을 위한 조업을 중단했거나 정박 중이며, 혹은 냉동 원어용 날개다랑어 및 기타 참치를 목표로 전환했다. 또한 일부 선박들은 초저온 부문으로 이동했다. 업계는 일본 시장



의 지속 여부를 우려 중이며, 자국이나 다른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일본의 신선 참치 수입을 분석하면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난다. 2018년에는 약 1만 3,562톤의 참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가 항공으로 운송되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이 물량이 1만 2,122톤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2018년 대비 67% 감소한 4,526톤을 기록하였다.

공급국 측면의 경우, 2018년 일본 시장에 신선 참치를 판매한 공급국은 25개국 이상이였다. 여전히 20개 이상의 공급국이 있으나, 물량이 적거나 일본으로의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8년 팔라우는 일본에 약 669톤의 눈다랑어와 약 1,170톤의 황다랑어를 수출하였으나, 2024년에는 수출 내역이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일본의 최대 신선 참치 공급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 423톤의 황다랑어, 809톤의 눈다랑어, 44톤의 참다랑어를 항공 수출하였다. 같은 해 대만은 25톤의 황다랑어, 단 9톤의 눈다랑어, 1.3톤의 참(가격 요인)

공급 감소와 물류난 외에, 일본 시장의 해외 선단 신선 참치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감소하였다. 엔화 약세와 높은 운임 비용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일본 경매장에서 자국산 어획물에 지불되는 가격과 고급 수입 어류의 가격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수년 전 일일 경매 보고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말 센다이 시장에서 호주산 눈다랑어 두 마리는 톤당 평균 2,000달러에 판매된 반면, 일본산 한 마리는 톤당 2,500달러였다. 2022년 9월 도쿄 시장에서도 미국산 자연산 참다랑어는 톤당 평균 5,109달러를 기록한 반면, 아오모리현산 연승 참다랑어는 어체 중량이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7,000달러였다.

2024년 일본으로 수입된 신선 참치류의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1만 1,04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다. 경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도 수입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일자

Declining Japan Fresh Tuna Imports

JAPAN: IMPORT FRESH CHILLED TUNA (FY) In M/T

	2022		2023		2024		Change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Indonesia	1,260	\$11,818	1,373	\$8,271	1,277	\$7,817	-7%	-5%
Australia	447	\$15,787	579	\$9,655	969	\$8,782	67%	-9%
Mexico	1,668	\$25,868	1,375	\$20,150	877	\$15,775	-36%	-22%
New Zealand	591	\$16,771	799	\$11,805	536	\$10,936	-33%	-7%
Korea	406	\$5,507	285	\$7,199	285	\$6,320	0%	-12%
Canada	195	\$31,095	168	\$24,339	164	\$25,589	-2%	5%
Others	646	\$17,375	531	\$18,174	418	\$13,841	-21%	-24%
Grand Total	5,213	\$18,133	5,110	\$13,673	4,526	\$11,040	-11%	-19%

Source: Japan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 2022~24년 일본 신선 참치 수입량 및 톤당 평균 단가 (공급국별) >



에콰도르 2024년 참치 가공 물량, 태국에 근접

2024년 한 해 동안 약 68만 톤 가공

2024년 에콰도르 참치 공장들이 처리한 원어 물량은 태국 통조림 공장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에콰도르의 냉동 원어 수입량과 에콰도르 선단의 어획량을 분석하면, 생산자들이 거의 70만 톤에 달하는 원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2024년 태국의 물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2024년, 만타를 비롯한 에콰도르의 통조림 공장들은 25만 9,523톤의 냉동 참치 원어를 수입하였다. 최대 공급국은 파나마로,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11만 5,072톤을 공급하였다.

미국과 스페인이 에콰도르에 공급한 물량은 각각 2만 6,320톤, 2만 1,079톤으로, 모든 공급국을 통틀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다. 아래 표는 에콰도르가 수입한 원어의 다양한 산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선단은 동부태평양(EPO)에서 참치를 조업하며, 대만과 미크로네시아 등의 일부 국가는 중서부태평양(WCPO)에서 조업한다.

2024년 전체 수입량 중에서 17만 1,285톤은 가다랑어로, 전체의 66%였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황다랑어의 물량은 7만 5,262톤으로, 전체의 29%였다.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는 각각 4%, 1%를 차지하였다.

2024년 동부태평양과 중서부태평양의 어획량은 대단히 많았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은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IATTC는 지난해 동부태평양 선망선단이 64만 5,000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국적 선단의 주요 참치종 어획량은 42만 2,006톤으로, 2023년 어획량 대비 36%나 급증하

였다. 이 중 35만 490톤이 가다랑어였다.

수입 물량과 에콰도르 선단의 자국 어획량을 합산한 결과, 에콰도르 통조림 가공업체는 총 68만 1,529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원어를 공급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또한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에콰도르의 가공 참치 수출이 급증한 이유를 설명한다. 에콰도르의 2024년 1월부터 8개월 동안의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점은 에콰도르 가공업체들이 2024년 처리한 원어 물량이 주요 가공 허브인 태국이 2024년에 처리한 물량에 근접하였다는 것이다. 태국 가공업체는 전 세계 선단으로부터 80만 9,041톤의 냉동 원어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올해 에콰도르로 공급되는 가다랑어 물량은 2024년에 비하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019~2023년 평균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Manta Canneries Imported High Volume of WR

Ecuador: Import Of Frozen WR Tuna In M/T

Top Countries of Origin

	2024
Panama	115,072
USA	26,320
Spain	21,079
Venezuela	18,452
Nicaragua	17,484
El Salvador	15,549
Taiwan	9,288
Colombia	9,065
Micronesia	5,309
Others	21,905
Grand Total	259,523

※ 출처: Atuna, 2025년 10월 14일자



中, 어떻게 주요 참치 어업 국가가 되었나

中 원양참치어업 발전 과정 연구 논문 발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은 수십 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이 연구는 중국이 수행해 온 관리 작업과 중국 참치 어업(연승 및 선망)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상하이대학은 10월 'Fisheries Research' 저널에 논문 '중국 원양참치어업(PTF)의 관리 탐구: 발전, 과제 및 권고'를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1988년 이래 중국의 원양참치어업은 4개의 뚜렷한 시기를 거쳤으며, 2개의 특기할 만한 전환이 있다. 첫째는 어업 확장 강조에서 어업 발전과 자원 보존 간의 균형 잡힌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중국 참치 어업 관리의 발전〉

첫 번째 변화 단계는 1988년에서 1994년까지였다. 이 기간에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 개발은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연안 지역의 어업 압력을 완화해야 하는 시급한 요구에 의해 시작되고 또 상당히 가속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참치 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틀을 확립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로,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하여 발전 속도를 늦추는 시기였다. "초기 기간 동안 원양참치어업이 급격히 확장된 후, 어장 집중화, 어장에 대한 빈번한 분쟁, 과도한 수산물 재고 누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산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

였고, 이로 인해 원양참치어업의 급격한 발전 모델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동 연구는 강조하였다.

1996년 중국은 EEZ와 공해상의 참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원양 어업 국가와 연안 국가 간의 협력을 관장하는 UN 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을 비준했다.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의 참치 어업 부문은 선단 규모의 구조 조정 단계를 거쳤으며 참치 관련 RFMO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IOTC(1998년)와 ICCAT(1996년)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에 중국 참치 어선단은 1994년 선단 규모의 절반 미만인 204척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자국 참치 어업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촉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9년에서 2015년 사이였다. 이 시기 원양참치어업은 중국이 선망 어업에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인수하여 대규모 선망 조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까지 중국은 선망선 척수를 9척으로 늘리면서 연간 총 참치 생산량의 55%에 해당하는 5만 2,744톤의 생산량을 달성하였다.

이 기간에 연구 개발도 활발해졌다. 2012년 중국은 국내에서 설계 및 건조된 참치 선망선을 도입하여 참치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2014년 선망선 척수는 29척으로 증가하였는데, 주로 중서부태평양(WCP)에서 조업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원양 참치 어업의 확장은 더 넓은 발전 궤도 내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중국은 WCPFC (2004년)와 IATTC(2009년)의 회원국이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참치 어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RF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하였다. 총 선박 수 안정화, 선원 안전 규정 강화, IUU 어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도입되었다. 모든 중국 어선은 수산부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RFMO 관할 수역 내에서 조업하고자 할 경우, 공해 어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게 되었으며, 어업 일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기록 또한 시행되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참치 어업을 위한 선박감시시스템(이하, VMS)을 시작했다. 2018년 기준 약 160개 기업이 소유한 약 2,600척의 선박(선망선, 연승선 및 기타 어구 사용 선박)이 VMS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참치 부문이 직면한 어려움〉

동 연구는 노동 강도 및 급여 문제로 인하여 선원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중국 원양참치어업이 선원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원양참치어업 선원의 평균 연간 소득은 6,944달러~8,333달러 수준으로, 연안 주민 연간 소득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원양참치어업은 중국 내륙 지역과 외국에서 선원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은 비표준화된 노동 계약, 불충분한 관리 관행, 노동 분쟁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다른 어려움으로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예: 유류 보조금 및 수익을 위한 국제 시장에서의 과도한 의존)와 부문의 불충분한 관리(예: IUU 어업 및 노동 문제)가 지목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해당 부문을 위해 구현된 감시,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1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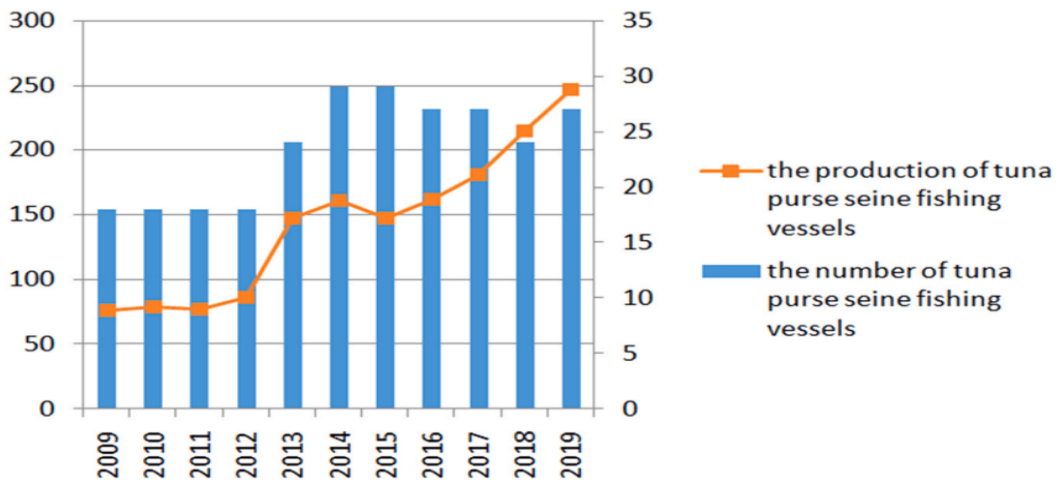


Fig. 2. The quantity and production of tuna purse seine fishing vessels in WCPFC (2009–2019) (Unit: 10³ t).

〈 2009~19 WCPFC 등록 中 선망선 척수&생산량 〉



日, 2025년 9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00톤 수입

〈 2025년 9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날개 다랑어	한국	43	87	119	32	122	221	47	84	10
	대만	127	38	513	685	504	828	2,283	215	2,606
	바누아투	-	11	521	174	87	19	-	-	-
	기타	287	57	378	362	700	666	264	357	1,014
	소계	458	194	1,531	1,253	1,414	1,735	2,594	656	3,630
황다 랑어	한국	131	657	667	318	189	909	244	259	250
	중국	259	420	370	461	692	314	190	667	371
	대만	767	1,074	1,481	834	1,200	557	976	1,422	1,470
	필리핀	-	-	-	-	-	-	-	-	-
	인니	-	-	-	-	24	11	8	25	33
	미국	-	-	-	-	-	-	-	-	-
	바누아투	9	128	24	77	255	83	75	203	51
	피지	-	-	-	-	-	-	-	-	-
	키리바시	-	-	-	-	-	-	-	14	-
	마셜제도	-	-	-	-	25	50	24	171	122
	기타	1,128	674	1,484	467	696	466	693	561	951
소계	2,296	2,953	4,027	2,157	3,080	2,390	2,210	3,322	3,246	
눈다 랑어	한국	116	131	91	236	135	674	440	110	200
	중국	671	750	845	1,202	649	796	1,653	1,358	740
	대만	1,502	3,146	3,164	2,958	2,938	808	1,486	2,143	1,880
	필리핀	-	-	-	-	-	-	-	-	-
	인니	-	-	-	-	-	-	-	-	-
	세이셸	1,253	632	1,339	150	643	305	799	471	785
	바누아투	71	432	118	55	744	282	-	233	10
	기타	138	234	274	212	204	88	73	124	135
	소계	3,750	5,325	5,831	4,812	5,313	2,954	4,451	4,438	3,750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	-	280	-	-	-	46	135
	대만	122	155	332	25	-	-	53	35	85
	호주	-	-	-	692	39	-	158	2,900	1,416
	소계	122	155	332	997	39	-	211	2,980	1,636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1월 7일자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에 의문 제기

의회 고유권한 침해 여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11월 5일 개시된 대법원 심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부과한 전면적인 관세 조치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관세는 전 세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미국의 주요 참치 공급국들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참치 업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보수 성향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논쟁이 첨예한 사안에서 트럼프 측을 꾸준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하,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발동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다.

1977년 12월 제정된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이다. 외신에 따르면, 보수 및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대통령의 의회 고유권한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상호 관세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 측은 대통령의 결정이 향후 수개월간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변호인인 닐 카티알은 "IEEPA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지난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장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부과 대상 국가, 상품, 범위,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행정부 권한을 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사우어 차관에게 "당신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는 명백히 세금이다. 관세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돈을 징수한다"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지만, 다수 사안에서 온건한 성향을 나타내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드로 간주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조치가 동맹국인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도 부과된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관세 권한이 행정부에 위임될 경우 의회가 그 권한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입법부 권한이 계속해서 행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한 선례를 들며 관세 조치에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캐버노 대법관은 비상 상황을 다루는 법령에서 수입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허용하면서 덜 극단적인 도구인 관세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불러올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배럿 대법관은 상호관세 조치가 무



효화될 시 관세 환급 절차에 관해 질문하면서, 더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이해가 걸린 금액이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하급 법원들은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반면, 다른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

한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까지 IEEPA에 따라 부과된 모든 교역 품목의 수입에서 900억 달러에 가까이 징수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을 발표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더 일찍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6일자 및 다수 외신

EU, 식용 참치 수입 시 냉동 관련 규정 강화 베트남, 인니, 에콰도르 등 EU 수출 타격 예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선망선 어획 냉동 참치의 식용 관련 규정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27일에 EU 및 외국 국적 선단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구식 소형 선망선 선주 및 스테이크, 횡감, 다타키 등을 생산하는 EU 가공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9일 위원회 규제 2025/1449호에 따르면, 참치 어선은 식용 참치를 영하 18°C까지 냉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추가로, 식품 사업 운영업체는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염수 온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망선 선상에서 처음에 영하 9°C로 냉동되어 염수 보존된 참치의 경우, 선상에 끌어올린 후 72시간 내에 영하 18°C로 냉동되지 않는다면, 통조림 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EC 측에 따르면, 냉동 및 ‘해동(re-freshed)’ 횡다랑어 스테이크, 횡감, 다타키 제품에서, EU

기준치 이상의 히스타민 검출이 RASFF(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는 진공포장 해동 참치 로인 제품도 포함된다.

2025년 초, EU 당국은 식용 참치에 대한 위생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유럽 어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Europeche는 이 조치가 “EU 시장에 수출하는 비(非) EU 국가 선단과 엄격한 위생 관리 및 인증을 받은 EU 선단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등 EU 국적 참치 선단은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최신식인 냉동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 규제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의 공급국은 자국 당국의 실시간 선박 감시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4일자



EU 강제노동규제, 참치 산업에 미칠 영향은?

EU 수입업체, 위험군 공급업체 거래 피할 가능성 존재

EU의 새로운 강제노동규제(Forced Labour Regulation, FLR)이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 기반한 인권 컨설팅·교육 기관 'Human Rights at Work'의 리즈베트 웅거(Liesbeth Unger) 이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FLR이 EU 참치 산업 및 아시아 공급업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FLR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EU 시장 내 수입·수출·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며, 이는 공급망 전반에 높은 수준의 실사 체계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웅거 이사는 이번 규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이 개입된 “제품 자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강제 노동 위험 지역과 산업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를 자동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국이 조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 분석을 체계화하기 위한 참고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U는 기업이 강제 노동을 예방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원칙과 일치하며, 향후 기업이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NGO 연구, 공급망 정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참치 제품의 강제 노동 연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웅거 이사는 “참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위험이 높은 분야로 간주되며, EU 당국의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EU에 3만 3,151톤의 자숙 로인을 수출한 중국의 경우, 환경정의재단(EJF)이 중국 윈양어선에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및 학대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에 기반해 EJF는 EU가 중국산 수산물 시장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는 FLR 시행 이후 실사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는 또 “강제 노동 위험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가공공장이나 장기간 해상에서 고립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윈양어선 등에서는 강제 노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 노동 증거 확보는 쉽지 않으며, 입증 책임은 규제 당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착수 시 기업은 30일 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은 평상시부터 공급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웅거 이사는 EU 시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조치로 ▲공급망 지도화 및 고위험 구간 파악 ▲고위험 공급업체 선정 및 근로 조건 검토 ▲예방 및 구제 조치 확인 ▲공급업체의 시정조치 지원 ▲강제 노동 확인 시 거래 단절 등을 제시했다. 또한 FLR에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급망 부담이 하청업체에 전가되거나 기업이 위험 공급업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실제 피해자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0일자



이니, 남방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 요구 좌절

개도국 참여와 형평성 문제 여전

지난 10월 6~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현행 어획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 관리, 국가별 어획량 배분, 조류 혼획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간 어획 한도 1,366톤(전체의 6.6%)을 최소 3,000톤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삭티 와후 프렝고노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배분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 권리를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란지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안국 지위를 강조했지만, 회원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원회 참여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어업 규정 준수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어선이 허용량을 초과해 조업했으며, 초과량 상쇄를 위한 ‘환급(payback)’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선박 간 어획물 전재 절차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연안국 지위는 인정하지만, 국가별 할당은 역사적 관리 기여와 협상 과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변경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방참다랑어 자원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연간 8만 톤 이상 남획되며 급감했지만, 2012년 도입된 관리절차 덕분에 현재 자원량은

역사적 최대치의 약 22% 수준으로 회복됐다. CCSBT는 2035년까지 이를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허용어획량(TAC)은 연간 20,647톤으로 유지된다. 과학위원회는 2027~2029년 기간 동안 약 3,000톤 증량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 표지(gene tagging) 프로그램의 전액 재지원도 결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어획량과 자원량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연구로, 과학적 관리의 기반이 된다. 또한 조류 보호 문제도 논의됐다. 연승(longline) 어구에 걸리는 알바트로스, 쉬어워터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논의를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2026년 초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 관리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BirdLife International과 ACAP는 일부 회원국 대응이 미흡하다며, “매년 같은 약속이 반복될 뿐 실질적 개선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 관리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와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의 글렌 홈즈 담당관은 “남방참다랑어 관리 절차는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개체수의 20% 수준 회복만으로 성공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출처: Mongabay.com, 2025년 10월 16일자



中 건조 선망선, WCPO에서 영향력 확대

中 선망선 건조 역량 증대

중국이 건조한 선망선이 지난 15년간 중서부태평양(WCPO)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 중이며, 중국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술로 건조하고, 중국 자본이 소유한 선망선들은 중국 및 태평양 도서국 국적으로 조업 중이다. WCPO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 및 성공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첫 WCPO 선망선은 2010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 로제트(Lojet), 로마로(Lomalo), 로메토(Lometo)호는 2010년 상하이카이창 해양산업(Shanghai Kaichuang Marine Industries)에서 건조되었으며, 전부 마셜제도 국적으로 조업하였다.

중국 선사들이 자국 조선소에서 선망선을 건조하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과거에 대만,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건조되어 중국 국영기업이 인수한 노후 선박들은 시급히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고선 수입 금지를 정책화하였다.

선망선은 건조가 매우 복잡하며, 광범위한 해양 전자 장치, 냉동 시설, 유압 시스템, 여러 특수 기계 등이 필요하다. 2010년에 처음 건조된 3척 중 2척은 대만에서 설계 및 제작되어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건조하였다. 다른 1척은 중국 선사들이 앞의 2척에서 경험을 쌓은 후 다소 수정되었다. 중국은 선박 개조 기술을 배우면서 직접 선망선을 건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선망선을 건조하는 2개의 주요 조선소로

는 푸젠에 위치한 마웨이(Mawei) 조선소, 그리고 엔타이에 위치한 국영기업인 징루(Jinglu) 조선소가 있다. 마웨이 조선소는 대만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대만 양국의 기업들과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징루 조선소는 중국 북동부 산둥성에 위치해 있으며, 선망선과 대형 연승선을 건조한다.

현재 중국에서 건조된 중국 국적 선망선 11척의 평균 선령은 8년 미만이며, 약 절반이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되었다.

해당 11척 외에도 태평양 도서국 국적으로 WCPO에서 조업하는 중국 건조 선망선이 여러 척 존재한다. 대만 선사가 소유한 미크로네시아 국적 선망선 7척이 있으며, 또 다른 대만 선사가 소유한 나우루 국적 선망선 4척, 솔로몬제도 국적 선망선 3척이 존재한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키리바시 국적 선망선 7척도 존재한다.

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FFA)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계는 성장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대형 선망선의 신조 비용이 2,100~2,400만 달러 선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조선소 중 일부, 특히 국영기업이거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대만, 일본, 한국 등 자국 국적으로 조업하는 주요 참치 선망 어업국 선사들의 선망선을 경쟁력 있게 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FFA는 말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열어젖히려면, 이러한 국가들의 선박 국적 또는 무역 관련 규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조선업계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합작하거나



해외 투자와 연관된 중국 자본 또는 대만 쪽 의뢰를 대상으로 중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관측된다.

FFA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여러 방면으로 선망선 건조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에서의 건조가 중국 조선소에 선박 건조 및 수리 관련 추가적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해외 합작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익숙한 공급처에서 신형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검증된 설계의 신형 선

박은 기존 선박 대비 조업상의 문제가 적고 가동 중단 시간도 짧아 대체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FFA는 밝혔다.

FFA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건조된 WCPO 조업 선망선은 총 37척으로, 이 중 26척이 태평양 도서국 국적이며, 나머지 11척은 중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0일자

EU 업계, EU-태국 FTA 참치 통조림 제외 재차 촉구

EU 수산부문 예산 감축 반대 의사 표명

지난 10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수산 부문 관련 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EU-태국 FTA를 비롯한 국제관계 및 무역 관련 주제, EU 수산부문 관련 예산, 어업 쿼터 등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선망어업 단체 Orthongel과 유럽 어업 부문 대표단체 Europeche는 태국과의 FTA에서 참치 통조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EU 당국에 어업 부문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Orthongel의 자비에 르뒤크(Xavier Leduc) 회장은 EU 집행위원회 측에 EU-태국 FTA 초안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Orthongel과 Europeche는 EU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태국과의 FTA에서 참치 제품을

제외하도록 촉구하였다. Europeche 참치 그룹의 안-프랑스 마틀레(Ane-France Mattlet) 이사는 “현행 규정상 EU는 저품질 참치의 EU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으나, 무관세로 진입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Europeche는 또한 EU의 2028년~2034년 차기 다년 재정 계획에서 어업 부문 예산을 67% 삭감하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삭감은 유럽의 경쟁력, 식량 안보, 그리고 수산업 고용을 크게 약화하게 된다. Europeche는 에너지 전환, 선단 현대화, 그리고 수산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 현재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특정 기금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9일자



태국 2024년 자숙 로인 수입 증가, 중국산 주도 가격 이점으로 수입산 비중 증가 추세

태국 통조림 업체들은 수년간 냉동 자숙 로인 수입을 늘려왔다. 태국은 자국에서 참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태국참치산업협회(이하, TTIA) 보고서에 따르면, HS 코드 1604.14.91 및 1604.14.99에 해당하는 자숙 참치 로인 및 참치 플레이크의 수입량은 2024년에 전년 대비 2만 391톤이나 급증하였다.

지난 5년간 해당 품목의 수입은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만 5,796톤 증가하였고, 202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39%나 증가하였다.

태국 통조림 공장들이 시설 내에 막대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국 생산 제품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024년 자숙 로인의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4,012달러로, 톤당 3,869달러였던 2023년 대비 3.6% 상승하였다. 2020년, 2021년, 2022년의 연간 평균 수입 가격은 각각 톤당 3,321달러, 3,142달러, 3,864달러였다.

태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상반기에 수입된 로인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중국산 로인의 비중은 2024년 66%였으나 올해는 63%를 차지한다. 중국 연승 선단은 주로 날개다랑어를 조업한다.

2023년 로인 수입은 1억 69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산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산과 베트남산이 이었다.

2024년에 중국산 수입량은 61% 급증하였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3,568만 달러가 더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산 수입은 4,05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올해 1~6월 중국산의 수입액은 4% 증가하였으나, 베트남산의 수입액은 137%나 증가하였다. 가다랑어 로인을 가공하는 트라이마린 공장이 위치한 솔로몬제도산은 2024년까지 수입 내역이 없었으나, 2025년에는 수입액 기준 168만 1,330달러가 수입되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수입산 자국 로인 전체 수입액은 9% 증가하였다.

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로인(대부분 날개다랑어)은 수년간 톤당 평균 5,135달러의 가격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하락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태국-미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13일자

Thailand: Import Pre-Cooked Loins
In M/T full year, in USD million

2020		2021		2022		2023		2024		Diff. %	
M/T	Value	M/T	Value	M/T	Value	M/T	Value	M/T	Value	M/T	Value
37,419	\$131.77	35,027	\$110.07	50,823	\$196.39	52,720	\$203.95	73,111	\$293.36	39%	44%

Source: TTIA

Powered By Atuna Analyst



日 참다랑어 양식 이증고에 부딪혀

지역별 경쟁력 격차 뚜렷

최근 일본의 양식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목인 참다랑어 양식산업도 높은 비용과 낮은 어가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일본 연구진은 GEM(기반·기업·시장) 모델을 토대로 일본 주요 참다랑어 양식 생산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 요인을 비교·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자원 여건, 정책 및 연구기관의 지원, 지역 내 양식기업의 역량, 관련 산업의 발전 수준, 시장 수요 등 6개 요소 아래 총 26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경쟁력을 평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나가사키, 가고시마, 고치, 미에 등 일본의 4대 주요 생산지역을 분석한 결과, '양식기업의 역량'이 지역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 및 연구기관의 지원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나가사키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식기업이 활동하며, 기업 역량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이는 나가사키현이 정부 및 협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산업 구조를 육성하고, 양식업과 관련 산업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다수의 기업을 해당 지역으로 유입시키며, 견고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이 경

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참다랑어 등 고급 어종의 남획이 심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ICCAT, WCPFC, IATTC, CCSBT 등)는 자원 관리 규제를 강화했고, 자연산 참다랑어의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양식 참다랑어가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일본 국내 양식 생산량은 2018년 1만 7,600톤에서 2021년 2만 1,460톤으로 22% 증가하며, 수입 양식 어와의 경쟁도 심화하였다.

일본의 주요 생산지는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에, 고치, 에히메 등으로, 이 중 상위 4개 지역이 전국 양식 참다랑어 생산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이 지역들은 복잡한 해안선과 쿠로시오(黒潮) 해류의 영향으로 양식에 유리한 수온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 치어 채집 규제 강화,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의 미비, 사료 가격 급등,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등으로 인해 산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 변동이 심한 구조적 문제도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37개였던 참다랑어 양식 시설은 2022년 186개로 증가했지만, 운영 주체 수는 94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높은 자본 부담과 빠른 자금 회전율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기업 중심의 다시설 운영체제가 주류를 이루며, 전체 시설의 1/3 이상을 자본력이 높은 16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형기업은 종묘 생산부터 출하까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해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비 상승(예: 고등어·정어리 단가가 2010년대 대비 2~3배 상승)과 시장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한 주요 기업의 경우, 참다랑어 양식사업의 수익률이 -48%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일본 참다랑어 양식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비교연구로, 지역 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기업 역량의 제고와 지역 단위의 산업 연계 강화”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회, 연구기관이 함께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Sciencedirect.com, 2025년 10월 17일자

타이유니온, 약 6억 달러 규모 ‘블루본드’ 발행 성공

2025년 지속가능 금융 목표 조기 초과 달성

세계적인 수산 기업 타이유니온 그룹이 총 190억 바트(약 5억 8,800만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Blue Bond) 및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에서 3.68배의 초과 청약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밝혔다.

타이유니온은 강한 수요에 힘입어 채권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바트에서 90억 바트로 늘렸으며, 이와 함께 100억 바트 규모의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약정도 체결하였다. 또한, 제시된 금리 범위의 최하단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금 조달로 타이유니온은 2025년까지 장기 자금의 75%를 지속가능연계 금융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였다. 타이유

니온은 2030년까지 이 비중을 100%로 한다는 목표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최근 타이유니온의 신용등급은 S&P 글로벌의 파트너사인 TRIS 레이팅으로부터 ‘A+’ 등급을 재확인받았다.

이번 금융 조달에는 아유타야 은행, 카시콘 은행, 시암 상업 은행 등 태국 주요 은행과 미즈호, OCBC,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HSBC 등 다수의 국제 은행이 참여하였다.

올해 초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조달한 50억 바트 규모의 블루론(Blue Loan)을 포함하면, 타이 유니온의 지속가능 금융 리파이낸싱 총액은 240억 바트(약 7억 4,200만 달러)에 달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일자



WCPO 선망어업 8월 전재량 증가

PNG에 집중...FAD 금어기 해제 영향

지난 8월 중서부태평양(WCPO)의 선망어업이 활기를 띠면서, 해상 전재 물량도 전월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 활동의 대부분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의 3개 주요 항구에 집중되었으며, 미크로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8월 WCPO 다랑어류 어획량은 7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조업 노력량 역시 15% 증가하였다. 8월 15일 FAD 금어기 기간 종료가 어획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다만, 일일 평균 어획량은 24톤으로 2% 감소하였다.

8월 선망선단의 전재량은 총 5만 6,660톤으로 전월

대비 4% 증가하였다. 전재 건수는 총 97건으로, 85건이었던 7월 대비 14% 증가하였다.

PNG의 마당(Madang), 라바울(Rabaul), 라에(Lae) 3개 항구에서의 전재 물량이 총 2만 4,837톤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크로네시아가 1만 1,289톤(20%), 키리바시가 1만 725톤(19%), 마셜제도가 9,031톤(16%), 솔로몬제도가 1,129톤(2%)을 기록하였다. 나우루와 투발루에서는 8월에 전재 보고 내역이 없었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일자

에콰도르 선사, 스페인 참치 어선 인수 예정

참치 어선 총 14척 보유 선사

에콰도르 최대 참치 가공업체이자 상위 10개 새우 수출업체 중 하나인 'Nirsa'가 인수 예정인 스페인 어선의 전면 개조를 추진 중이다.

개조 대상 선박인 'Guria' 호는 길이 80m 규모의 냉동 참치 어선으로, 현재는 파산한 스페인 바스크 선사 'Nicra-7'의 의뢰로 스페인 'Zamakona' 조선소에서 2015년 9월 건조되었다. Guria 호는 현재 스페인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수 주에서 수개월 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Nirsa는 현재 총 29척의 어선을 보유 중이며, 참치 어선 14척, 정어리 어선 7척, 소형 어선 8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Nirsa는 에콰도르 최대의 참치 선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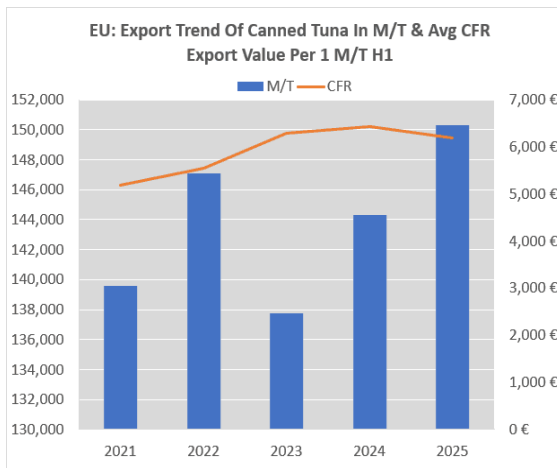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1월 4일자



EU 2025년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출, 5년간 최고치

EU 내 무역 대다수 차지

EU는 2025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총 15만 296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6,186유로였다. 참치 생산국(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수출량 합계는 10만 1,880톤으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참치 통조림 선호에 힘입어 수출량은 지난 5년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EU '21~'25년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막대)·수출액(선) 〉

상반기 동안 같은 EU 국가로 수출된 EU산 통조림은 총 13만 6,234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6,039유로였다.

2025년 상반기 동안 EU산 통조림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이탈리아로, 3만 427톤을 수입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6,658유로로, 이러한 가격은 수입 물량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다랑어류인 프리미엄급 황다랑어 제품이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프랑스의 EU산 통조림 수입량은 6% 감소한 2만 4,981톤이나, 평균 수입 가격은 높은 편인 톤당 6,013유로였다. 프랑스의 통조림 주요 공급국은 스페인이다. 프랑스 보존식품연합(FIAC) 측은 올해 초 유럽 참치 컨퍼런스에서 프랑스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프랑스 시장의 수입 통조림 의존도가 높다고 말하였다.

독일과 스페인의 상반기 수입량은 1만 5,094톤, 8,422톤으로 각각 전년도 상반기 대비 19%, 26%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1%, 3% 하락하였다. 네덜란드의 수입량은 5,651톤이며 가격은 톤당 평균 6,008 유로이다.

벨기에의 수입량은 5,484톤이지만, 평균 수입 가격은 수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톤당 4,917유로로, 물량의 대부분은 가다랑어 제품인 것으로 추측된다.

EU 외부 국가의 EU산 통조림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1만 4,062톤이며, 평균 가격은 3% 하락한 톤당 7,603유로이다.

EU 외부 국가 중 최대의 수입국은 캐나다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수입량도 전년도 대비 5% 감소한 1,595톤에 그쳤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7,866유로였다. 모로코의 수입량은 1,206톤이며, 평균 가격은 EU 외부 수입국 중 가장 낮은 톤당 5,643유로였다.

미국의 EU산 통조림 수입량은 1,130톤이며, 평균 가격은 가장 높은 톤당 1만 125유로이다. 이러한 가격은 물량의 상당수가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프리미엄 황다랑어 제품임을 암시한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3일자



EU, 상반기 동안 자숙 로인 수출 증가 전년도 대비 35% 증가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EU가 수출한 자숙 로인의 양은 전년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만 4,072톤이며,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5,884유로였다. 이러한 수출량은 지난 5년간의 상반기 수출량을 통틀어 최고치 일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도 최고치이다.

2025년 상반기 동안 EU의 모든 주요 가공국의 자숙 로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스페인인 EU 최대의 자숙 로인 수출국이다. 스페인의 자숙 로인 수출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1,658톤 증가한 7,078톤이며, 평균 가격은 EU 주요 수출국 중 최고가인 톤당 8,142유로였다. 수출품은 주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이다. 포르투갈의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080톤이며, 톤당 가격은 톤당 2,142유로로 주요 수출국 중 최저가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수출량은 각각 1,654톤, 505톤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각각 524톤과 30톤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4,389유로인 반면, 프랑스는 톤당 6,503유로라는 높은 가격이였다.

EU에서 수출한 자숙 로인은 대부분 EU 통조림 업체로 향하였다. 같은 EU 국가로 수출된 자숙 로인의 양은 2024년 상반기 대비 30% 증가한 1만 2,849톤이며, 가격은 전년도 대비 7% 하락한 톤당 6,042유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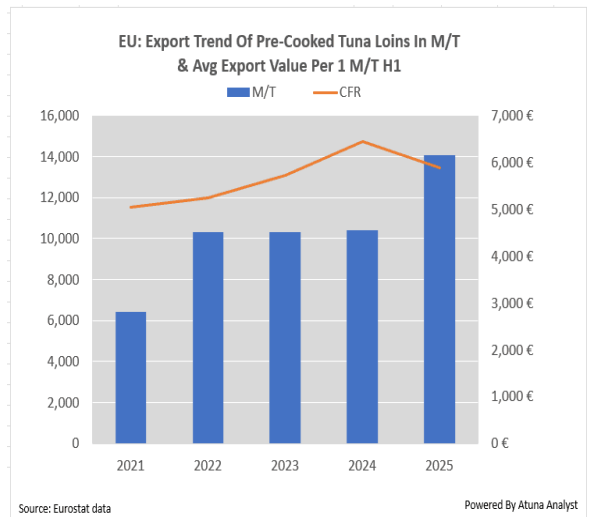
EU산 로인의 최대 수입국은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의 EU산 로인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32% 증가한 4,333톤이며, 가격은 톤당 1,967유로로 주요 수입국 중 최저가였다. 이러한 가격은 스페인으로 수출된 자숙 로인이 저품질이거나 작은 크기의 가다랑어

위주임을 시사한다.

스페인의 뒤를 이은 수입국은 포르투갈이다. 이들은 전년도 대비 793톤 증가한 3,795톤을 수입하였으며, 가격은 톤당 5,679유로였다.

황다랑어 로인을 주로 수입하는 이탈리아로 수출된 물량은 2024년 상반기 대비 1,000톤 이상 증가한 2,834톤이며, 가격은 톤당 1만 1,203유로의 고가였다. 프랑스와 독일로 수출된 로인의 평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톤당 1만 346유로, 9,112유로였으나, 물량은 각각 364톤과 356톤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EU 외부로 수출된 물량은 148% 증가한 1,223톤이며, 이 중 306톤이 알바니아로 향하였다.



〈 EU '21~'25년 상반기 자숙 로인 수출량(막대)·수출액(선) 〉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7일자



2024년 대서양 참치 어획량, 매우 낮은 수준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 영향

2024년 대서양 연간 참치 어획량이 지난 14년을 통틀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어획량 부족은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2024년 동안 대서양에서 어획된 상업용 참치 어종의 어획량은 48만 6,999톤이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2022년 대비 감소하였던 2023년 연간 어획량보다도 10%나 감소한 것이다. 9월 말 ICCAT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총 어획량이 적었던 적은 없다.

어획량 부족은 2024년에 동부 및 서부 대서양에서 모두 나타났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0만 5,206톤으로 전년도 대비 18%(4만 4,223톤)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2010년(18만 7,070톤) 이후 처음이다. 황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는 전년도 대비 각각 6,336톤, 5,173톤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국적 선단은 동부 대서양에서의 가다랑어 어획량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가나 선단의 어획량은 2023년도 대비 8,670톤이나 증가하였다. 해당 선단은 신라교역과 동원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네갈 선단의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42%나 감소하였다.

지난 수년간 모로코 선단은 참치 어업국으로서 발전하였으며, 2024년에 이들의 어획량은 1만 5,835톤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모로코 선단 어획량이 4,000톤 미만임을 감안하면 대폭 성장한 셈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선박으로 구성된 EU 선단은 역사적으로 대서양 가다랑어 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 이들의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져, 스페인 선단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만 5,417톤, 프랑스 선단은 1만 2,561톤이나 감소하였다.

대서양에서 스페인 선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어획량은 모로코와 벨리즈 선단에도 추월당했다. 벨리즈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23%나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2024년 동부 대서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다랑어를 어획한 선단으로 자리 잡았다.

선망 업종은 동부 대서양 가다랑어 전체 어획량 중 85%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기타 업종(11%), 낚시 업종(3.4%)이 차지하였다.

브라질 선단은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2024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2만 2,437톤으로 전년도 대비 6,448톤 감소하였는데, 2024년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의 전체 감소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브라질 외에는 가나와 베네수엘라 정도가 서부 대서양에서 일정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의 66%는 낚시 업종이 차지하였으며, 기타 업종(19.9%), 연승 업종(11%)이 뒤를 이었다. 선망 업종은 서부 대서양에서 거의 조업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2일자



태국, 어업법 개정안 통과...원양어업 규제 철폐 등 포함

태국 어업계 환영, 환경단체 및 영세어업자 반발

태국 의회가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았던 어업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지난 9월 17일 승인된 2015년 어업법에 대한 71개 개정 조항은, 과거 태국이 환경 및 노동 보호 관련 규제 부족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은 이후 도입했던 보호 조치들을 상당 부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어업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원양어업 제한 철폐 ▽지방 수산위원회 개편 ▽어업 허가를 태국 국적자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 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운영 지속 허용 ▽해안 12해리 밖에서 그물코 크기 2.5cm 미만의 선망 사용 허용 등도

포함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태국 수산청장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태국의 영세 어업 부문의 전망을 개선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태국어민연합회회는 이번 법 개정이 특히 치어 등 해양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린피스, 환경정의재단 등 57개 태국 국내외 환경 NGO 단체는 지난 1월 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규제 완화가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태국의 국제적 약속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 출처: Bangkok Post, 2025년 10월 7일자

中, 황다랑어 양식 개시

경제적 타당성 아직 미지수

중국이 하이난성 링수이 리 자치현에서 황다랑어 양식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양식산 참치는 약 50kg 크기로 성장하면서 지난달 수확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 수산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그룹(기관명은 미공개)은 약 10년 전 시험적으로 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년 전 남중국해에서 잡은 참치를 양식장에 도입하였다. 현재는 둘레 90m 규모의 중력식 가두리 네 곳에서 사육 중이다. 이러한 사업은 중국의 심해 양식 기술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고급 참치 공급을 가능

케 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였다.

이번 양식 개발은 하이난성이 해양 어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kg당 수천 달러에 거래되는 양식 참다랑어와 달리, 황다랑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미끼용 어류 공급과 양식장 운영 비용이 높아 양식업자가 투자 대비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23일자



대서양 2024년 황다랑어 어획량, 전년도 수준 과학자, ICCAT에 TAC 초과 방지 위한 대책 마련 권고

2024년 대서양 참치류 어획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EU 국적 선단의 어획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과학자들은 지난 수년간 황다랑어 어획량이 허용 가능한 한도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2024년 동안 대서양에서 어획된 상업용 참치 어종의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0% 감소한 48만 6,999톤으로, 가다랑어 어획량이 특히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14만 302톤을 기록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 상임조사통계위원회(이하, SCRS)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2024년에는 다수 선단의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나, 황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하였다.

ICCAT 관할 수역에서 2024년에 가장 많은 황다랑어 어획량을 기록한 선단은 EU 선단이었다. 프랑스, 스페인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 합계는 2만 9,624톤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다.

가나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2만 5,452톤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다. 가나 선단은 15척의 낚시 선단과 17척의 선망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 EEZ와 그 외부에서 열대 참치 어종을 어획한다. 이들의 어획량은 대부분 선망선단이 설치한 FAD를 통해 어획되었다.

한편, 파나마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선단 감축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이들의 2024년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7,074톤이나 감소한 1,422톤이다. 2023년 파나마 선단은 선망선 4척과 연승선 15척(길이 20m 이상)이 대서양에서 조업하였으나, 2024년에는 선망선 2척만이 조업하였다. 파나마 선단은 상당수가 2024년에 막대한 어획량이 보고된 동부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원평가(2022년 데이터까지 포함)는 대서양 황다랑어 자원은 건강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황다랑어 어획량은 ICCAT이 설정한 TAC인 11만 톤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 SCRS는 지난 5년(2018~2022년)간의 평균 연간 어획량이 14만 1,000톤이며, 이러한 어획량으로 인해 자원이 남획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였다.

SCRS는 또한 “게다가, TAC가 계속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보존 및 관리 조치는 어획량을 제한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말하였다.

과학위원회는 ICCAT이 황다랑어 어획량이 채택된 TAC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4일자



트럼프 무역전쟁, 베트남 참치 무역에 큰 타격

2025년 수출 실적, 전년도 대비 감소 예상

올해 1~3분기 베트남의 참치 수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었지만, EU와의 거래는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신선·냉동 참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 참치(통조림·자숙 로인 등)가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의 1~3분기 참치 수출액은 7억 5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선·냉동 참치 수출액은 3억 8,300만 달러로 2% 증가했지만, 가공 참치는 3억 2,200만 달러에 그쳤다. VASEP는 국내 원어 공급 부족으로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참치 원어 가격과 물류비용이 상승했음에도 판매 가격은 오르지 않아 통조림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 시장이었지만, 1~3분기 수출액은 2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특히 9월 한 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17% 줄었다. VASEP는 연초 미국 수입업자들이 상호 관세 시행을 피하기 위해 참치 수입을 늘려 재고가 증가한 점과,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 압력 강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베트남 참치 제품에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에는 20% 관세 부과가 확인됐다. 베트남은 미국에 통조림, 조리 가공 로인, 소량 파우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 EU 시장으로의 수출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1~3분기 수출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3%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수출은 늘었지만, 독일은 감소했다. VASEP는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EU 지속가능성 표준과 원산지 증명 요구에 점차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여전히 EU '옐로 카드' 상태로, 유럽의 실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집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캐나다 등 CPTPP 회원국 대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900만 달러로, CPTPP 관세 혜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멕시코, 칠레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가공국인 태국으로의 로인 수출은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VASEP는 태국 수출 증가가 국내 가공업체의 해외 협력 확대와 품질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무역업계는 남은 2개월 동안 미국과 EU의 참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일본의 횡감염 및 기타 고급 냉동 참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참치 부문 전체 수출액은 9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VASEP는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와 중동·아프리카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제품과 지속가능성 인증 제품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 미국 상호 관세 시행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참치 산업이 안정적 수출을 위해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지속가능성 인증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EU·미국 시장 대응 능력이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8일자



캐나다 언론, 참치 관련 NGO 주장 맹비판

NGO 측 비과학적 주장 전면 반박

다수 캐나다 언론이 NGO 단체 '블룸(Bloom)'과 '푸드워치(Foodwatch)'가 2024년 제기한 참치 수은 관련 주장을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전면 반박하였다. 언론은 수개월 전 프랑스 다수 도시에서 학교 급식에 참치 통조림을 금지한 결정에 놀라움을 표하였으며, NGO가 제기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건강 및 영양 전문가들은 해당 논란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참치 통조림 수은 함유량 관련 논란은 블룸과 푸드워치가 2024년 10월 EU 규제당국에 참치 수은 함유량 규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블룸과 푸드워치는 유럽의 다수 소매업체가 '오염된 참치'를 팔고 있다고 주장하며, 참치 통조림 제품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정부 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치가 "신뢰성과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캐나다 온라인 언론 '라 프레스(La Presse)'는 지난 10월 17일 "두려워하지 않고 참치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동 기사는 참치 통조림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정한 기준치의 안전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전문가 견해: 정부 기준치 적절...참치 통조림, 취약계층에 적합〉

라 프레스가 인터뷰한 라발 대학교(Laval University) 멜라니 르미르(Melanie Lemire) 사회예방의학과 교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연구한다. 르미르 교수는 "참

치 통조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현행 권고는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교수는 또한 "참치 통조림은 특히 취약 계층 가정과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저렴한 식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견해: NGO 주장, 잘못된 전제로 수치 왜곡〉

해양 생태학 연구원인 아나이스 메디유(Anais Medieu)는 블룸이 참치 통조림의 수은 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한 데이터 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농도가 선형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블룸은 참치 통조림의 수분 함량을 20%로 간주하였으나, 메디유는 과학 문헌과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는 50%에서 80% 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비율은 염수 참치, 기름 참치 등 참치의 조리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블룸이 사용한 계산법은 수은 농도를 왜곡하기 때문에,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통조림의 수를 과대평가한다고 메디유는 지적하였다.

한 스페인 독성학 전문가는 "블룸의 데이터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라고 단언하였다.

'라 프레스'의 해당 기사는 또한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다.

〈캐나다 방송, NGO 주장 반박 내용 방영〉

캐나다의 뉴스 전문 네트워크 'TVA 누벨(TVA Nouvelles)'은 10월 17일 "참치 통조림 소비: 수은 섭취를 우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뉴스를 공유하였



다. 해당 뉴스는 TV 채널에서도 방영되었다.

기자는 영양학 전문가 미리암 보드리(Myriam Beaudry)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드리는 라이트 참치 통조림(canned light tuna, 가다랑어 등 비교적 작은 종으로 만드는 통조림)에 대해 “이 제품에 들어가는 참치의 경우,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수은이 축적되기에는 너무 작은 어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섭취 제한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보드리는 또한 대중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주장에 당황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으며, 출처와 신뢰성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할 것

을 권장하였다.

프랑스 선망 어업 단체인 Orthongel은 캐나다 언론의 분석에 대해 “캐나다이든 다른 곳이든, 사실에 기반한 접근만이 진실과 의혹을 구분하고 두려움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Orthongel의 이사인 미셸 구종(Michel Goujon)은 “과학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실 확인은 환영”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7일자

월마트재단, 참치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투자

SFP, ISSF, GFW의 데이터 통합해 조업·규제 정보 한눈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의 사회공헌 재단인 월마트 재단(Walmart Foundation)이 글로벌 참치 어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수산파트너십(SFP), 국제수산지속가능성재단(ISSF), 글로벌피싱위치(GFW) 등 3개 주요 국제기구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FP의 생물다양성·자연 부문 책임자인 캐서린 노박은 성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매자가 어느 선박이 지속가능한 조업을 수행하며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노박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익숙한 플랫폼으로 통합해 바이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어들은 보다 근거 있는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GFW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찰스 킬고어는 “이번 데이터 통합을 통해, 데이터 격차와 위험 요인을 포함한 어선 단위의 활동을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며 “어업의 위험 완화 노력을 정밀화하고, 정부와 산업 간의 책임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2일자



중 원양어선단, 칠레 북부 해역서 활동 확대

홍볼트오징어 자원 고갈 우려

칠레 북부 해역에 대규모 중국 원양어선단이 출현하면서 현지 어민과 해양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칠레의 EEZ 경계선 인근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 주요 어종인 홍볼트오징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영세어업자들은 최근 몇 달간 홍볼트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호소한다.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어민연합 대표는 “지난 3개월 동안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았다”라며 “중국 어선들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홍볼트오징어의 연안 이동 경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칠레 해군은 이키케 해역 인근에서 약 66척, 아리카(Arica) 북부 국경 인근에는 160척 이상의 중국 선박이 탐지되었다고 밝혔다. 모두 칠레의 EEZ 경계 밖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그프리도 라미레스 해군 안전작전국장은 “위성과 항공, 해상 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EEZ 내부에서 불법 조업이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칠레 국가수산청도 외국 선박의 입항 시 기록검사와 화물 추적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9월 말 기준으로 157건의 외국 선박 입항 신청 중 139건을 승인하고, 18건은 요건 미비로 반려하였다.

그러나 현지 어민단체들은 “해양 감시 능력이 부족하다”라며 정부에 드론 투입과 인접국 간 공동 감시 체계 구축,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어민 대표 루이스 타피아는 “이번 사안은 오징어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양 생태계 전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어선의 칠레행 급증 배경으로는 페루의 항만 규제 강화가 지목된다.

국제 해양보전단체 오세아나(Oceana)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칠레 항만에 입항한 중국 어선이 전년 대비 1,628% 증가하였다.

페루의 비영리 어업단체 아르티소날(ArtisOnal)은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3~2024년 동안 페루 항만에는 각각 155척과 205척의 중국 어선이 입항하였으나, 칠레에는 각각 5척과 7척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중국 어선의 칠레 입항은 121건으로 급증했고, 페루 입항은 ‘0건’을 기록하였다.

아르티소날의 어업국장 엘로이 아로니는 “과거 일부 중국 어선이 페루 EEZ 인근에서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불법적으로 입항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페루 정부는 위성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일부 어선들이 긴급 입항 허가 제도를 악용하면서 규제를 회피하였다.

페루 당국은 2024년 말 해당 허점을 차단했고, 이후 중국 어선들이 남하해 칠레 항만을 이용하는 경로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원양어선단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남미 해역에서는 주로 홍볼트오징어(칠레명 히비아, jibia)를 조업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오세아나가 중국 어선의 AIS 신호 차단 등 불법 조업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에콰도르·페루·칠레 등은 위성감시망과 항공·해상 정찰을 강화해 왔다.

※ 출처: Upi.com, 2025년 10월 10일자



日 언론, 오징어 관련 동향 분석

해외산 오징어 수요 증가로 고가 추세

일본 수산 전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자국산 오징어의 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인 해외산 오징어도 최근 수년간 국제적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이례적인 어획량 부족을 겪었던 페루산 대왕오징어(홍볼트 오징어)의 어획량이 회복되었다는 긍정적인 화제가 있다. 엘니뇨 현상 종식의 영향으로, 여름까지 당초의 어획 쿼터인 30만 톤이 어획되었다. 이후 추가 쿼터를 통해 연말까지 50만 톤 이상의 할당량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만 톤 미만으로 종료된 2024년 대비 2배 이상으로,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였다”라고 상사 관계자는 말하였다.

다만, 치열했던 수입 환경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획이 정리되는 6월경에는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곧 반등하였다. 2024년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재고 부족, 페루의 조기 쿼터 소진으로 인한 일시적 조업 중단, 중국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지인 유럽도 이를 추진한 점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오징어 필렛 가격은 kg당 550~600엔, 귀(오징어 지느러미)는 500엔 전후로, 2024년 같은 시기 대비 대략 20~30% 높다. 어획량 부족의 영향으로 필렛 가격이 700엔을 호

가하기도 했던 봄에 비하면 다소 하락하였으나, 가공업자 입장에서선 여전히 손대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상사 관계자는 전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페루산 대왕오징어 수입 평균 단가는 전년도 동기 대비 49% 상승한 585엔이다. 수입량은 1만 2,400톤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전년도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 칠레산의 평균 단가는 80% 상승한 623엔을 기록하였다.

이번 시즌은 아르헨티나산 일렉스오징어도 전년도보다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나, 일본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는 않았다. 1~8월 수입량은 37% 감소한 4,074톤이다. 국제적인 수요를 배경으로 단가가 15% 상승한 765엔으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사 관계자는 일본 내 오징어 원료 환경에 대해, “2024년의 비싼 대왕오징어 원료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가공업자도 있다. 러시아산 두점박이사오징어나 중국산 검정오징어 등도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특별히 저렴하지 않아 가공업자들은 당분간 어려운 운영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0월 21일자



中 적도오징어 가격 횡보 추세

中 시장 오징어 고가 행진 지속

중국 선단이 어획하는 적도오징어(페루에서 2,000해리 이상 떨어진 서부 적도상에서 어획하는 오징어류)의 10월 중순 시점 가격은 9월 중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어된다.

1미당 500g 이하는 톤당 2만 1,000~2만 1,500위안, 500g~1kg은 1만 8,000~1만 8,500위안, 1~2kg은 1만 7,200~1만 7,500위안, 2~4kg은 1만 6,500~1만 6,800위안으로, 고가 수준이 계속된다고 상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대형 껍질제거 필렛은 2만 8,000~2만 8,500위안, 귀는 2만 6,500~2만 7,000위안, 다리는 2만 5,500~2만 6,500위안이다.

한편, 페루에서는 어획량이나 조업 기간에 제한을 둔 상태로 페루산 홈볼트오징어 조업이 재개된 것으

로 전해진다.

중국의 살오징어 어획 상황에 대해 한 상사 소식통은 “조업에 나가도 어획이 되지 않아 출항 선박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1일 1척당 어획량은 약 1~2톤에 그치고 있다. 10월 중순 현재 시세는 크기에 따라 톤당 3만 4,500~4만 위안 선에서 움직이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류, 남미산 대왕오징어류 등 포함) 수입량은 4만 6,497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0월 23일자

日 무라사키오징어, 최근 보기 드문 어획량 기록

오징어 재고 부족으로 가격 상승 추세

일본의 북서태평양 냉동 무라사키오징어의 2025년도 여름 조업 2항차가 종료되었다. 10월 27일 시점, 중형선 1척과 대형선 1척이 창고 입고 중이므로 명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어기 총계로 5,850~5,86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양륙항은 전체 양륙량의 80%를 차지하는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하코다테항이다. 평균 단가는 10kg당 6,530엔이었다. 풍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류의 만성적인 재고 부족으로 인해 양륙 초반부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2항차 역시 마찬가지로 풍어를 이뤄, 근래 보기 드문 수준의 양륙이 계속되면서, 1항차와는 정반대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9월 상순에는 5,800엔까지 떨어졌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2척분은 11월 상순에 판매할 예정이지만, 2항차의 전체 평균은 6,300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어기 전체 평균은 6,350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선이 조업하는 선상 냉동 살오징어류는 29척이 하치노헤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다. 선어의 양륙이 없어지면서 가격도 상승 추세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0월 29일자



칼라마수르, EU에 오징어 IUU 관련 조치 촉구

EU 전자 인증 도입 시스템 관련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지속가능 관리 위원회(칼라마수르) 알폰소 미란다 회장은 수산협회(Conxemar)가 개최한 행사에서 EU가 중국 선단의 공해상 비규제·IUU 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란다 회장은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자원이 2024년 기록적 최저치 이후 2025년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대규모 중국 선단의 공해 조업 지속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PRFMO 회원국이자 주요 수입시장인 EU가 효과적 보존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위조 조업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 기준과 추적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페루는 올해 약 60만 톤의 오징어를 어획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8만 톤에서 크게 증가했다.

Conxemar의 요바나 베르무데스 사무총장은 칠레·페루산 오징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EU가 2026년부터 수입 어획물 전자 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추적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남태평양 오징어 어업과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핵심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0일자

페루, 번식기 대왕오징어 보호 목적 금어기 시행

약 1개월간 시행

페루 생산부는 금어기 동안 대왕오징어(훔볼트 오징어, jumbo flying squid) 자원 보호를 위하여 전국 단위 금어기를 시행하였다.

이 금어기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다.

동 금어기 동안 대왕오징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어업, 운송, 가공, 판매는 금지된다. 단,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오징어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동 조치는 대왕오징어의 지속가능성 및 대왕오징어 어업 부문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페루 해양연구소 'Imarpe'의 과학적 권고에 근거한 것이다.

페루 해양연구소가 오징어의 번식 활동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한다면, 금어기 기간은 조정될 수도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27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어업 청어 혼획 한도 상향 검토

트럼프 행정부 규제 해제 방침 영향

미국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이하, NPFMC)는 베링해의 알래스카 명태 어선단에 허용되는 태평양 청어 혼획 한도를 2배 또는 3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총 생물자원의 1%로 설정된 현재의 청어 혼획 상한선이 상업적 청어 어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나, 청어에 대한 시장 관심 부진으로 인하여 조업 노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트롤 선단이 청어 혼획 한도 초과로 인한 어업 중단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연어 혼획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10월 8일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에 청어 상한선을 2배 또는 3배로 늘리는 방안을 분석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알래

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NPFMC의 12월 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다.

2개월은 위원회에게 비교적 짧은 일정인데,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규제 변경이 검토되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는 '토론 문서'를 작성하도록 연방 과학자들에게 과업을 부여한다. 그러나 베이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통한 신속한 규제 부담 제거라는 방침을 강조하였다.

청어 혼획 한도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청어를 주요 생계자원으로 여기는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를 비롯하여, 각종 환경론자의 비판 및 정치적 이해로 인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9일자

명태의 숨은 힘: 건강·안전·경제성

닭고기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신뢰성과 영양학적 가치 우수

최근 생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생선이 사실상 '고급 식품'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의 눈길이 다시 명태로 향하고 있다.

푸드 전문 채널 'Food.ru - 삶을 맛있고 의미 있게'는 명태의 다양한 장점을 소개하며, 이 생선이 단순히 저렴한 대중어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재료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태는 생선가스, 동그랑땡, 냉동 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명태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다. 100g 기준으로 함유된 단백질량은 닭고기보다 많으며, 열량이 낮아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

로 꼽힌다. 또한 비타민 A, D, B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한다. 특히 명태 간(肝)은 영양학적으로도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간유 공급원으로 알려진 대구 간보다 비타민 A 함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이다. 명태는 장기간 섭취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신뢰도가 높은 생선이다.

이처럼 명태는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영양, 안전성, 다양성을 모두 갖춘 식품으로, 전 세계 식탁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하다.

※ 출처: b-port.com, 2025년 10월 1일자



러 명태 필렛 가격, EU 관세 반영 시 미국산과 동등 中 이중냉동 제품 가격도 급등

여러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산 PBO(가시 제거) 명태 필렛 블록의 가격이 유럽 냉동창고 출고가 기준으로 13.7%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산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2026년 A시즌과 B시즌 사이의 소규모 거래에서, 러시아산 및 미국산 싱글프로즌(어획 직후 1회 냉동한 제품) 제품과 중국산 더블프로즌(싱글프로즌 제품을 해동하여 가공 후 재냉동한 제품) 필렛 블록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산 및 미국산 물량이 계약 완료되고 중국의 가공 능력이 감소하면서, 견고해지는 명태 시장은 10월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저서어류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산 명태 PBO 필렛 블록의 10월 유럽 냉동창고 출고가 평가치는 전월 대비 톤당 200달러 상승하였다.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톤당 900달러(35%) 상승하였다.

이후 러시아산 H&G(머리, 내장 제거) 명태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중냉동 필렛 블록의 10월 중국 본선인도가격(FOB) 또한 전월 대비 톤당 200달러 상승하였다. 전년도 동기 대비 가격과 비교하면 톤당 875달러(37%) 상승한 셈이다.

러시아산 H&G를 사용한 러시아 명태 원어(싱글프로즌 혹은 중국산 더블프로즌)는 2024년 1월 1일부터 EU의 자율관세할당(ATQ)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산 명태 원어에는 13.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산 PBO 필렛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상기의 러시아산 냉동창고 출고가 기준 PBO 가격과 중국산 더블프로즌 FOB 가격은 관세 미포함 가격이며, 13.7%의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미국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10월 PBO 필렛 블록 가격은 전월 대비 톤당 150달러 상승하였다. 미국산 물량의 상당 부분은 연초에 체결된 연간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주요 B 시즌 거래도 일찍 합의되었다.

10월 기준 미국산 가격은 지난해보다 톤당 400달러(11%) 상승하여, 가격이 폭락했던 중국산과 러시아산보다는 상승률이 더뎠다.

업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EU의 제재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유럽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러시아의 주요 수산 기업들은 B시즌(하반기 조업 시즌) 동안 유럽행 물량 생산을 늦추다 최근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소매업체와 연간 고정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원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유럽 수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닥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였다”라며 “10월 하순 개최될 저서어류 포럼에서 향후 공급 계획과 가격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6일자



지정학적 충격으로 대구·해덕대구 사상 최고가

EU·노르웨이 러 기업 제재 여파

전례 없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 감소가 결합하여 대구와 해덕대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노르웨이산 및 러시아산 H&G(머리, 내장 제거) 대구와 해덕대구의 중국 인도 기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구 및 해덕대구 H&G의 가격 급등 원인은 단순히 수요-공급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5월, EU는 러시아 노레보(Norebo)와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대구 쿼터의 40~45%를 시장에서 차단하였다. 이후 6월,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JNRFC)는 2026년 대구 쿼터를 21% 감축한 26만 9,440톤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사태는 50년 이상 지속된 러시아-노르웨이 어업 협력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냉전기와 정치적 위기 상황을 견뎌온 양국은 대구 어획 쿼터, 연구 협력, 관리 체계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모스크바가 노르웨이의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10월 6일 두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핵심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제재와 반발: 어업권과 경제적 이해 충돌〉

노르웨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충돌 이후 대부분 EU 제재를 지지했지만, 어업 협력 유지 차원에서 일부 예외를 뒀다. 그러나 2025년 8월, 노르웨이는 러시아 수산기업 'Norebo'와 'Murman Seafood'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해당 선박의 노르웨이 항만 접근과 EEZ 조업을 제한하였다. 제재 이유는 해당 기업이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

정부 정보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었다.

러시아 측은 제재를 사실과 맞지 않는 근거로 평가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임시 주노르웨이 대사에게 외교노트를 전달하며, 제재가 양국 간 어업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수산청장은 "노르웨이가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러시아 EEZ를 노르웨이 선박에 폐쇄할 수 있다"라며, 협정 파기 시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에서의 쿼터 배분을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노르웨이의 프리티오프 난센 연구소(Fritjof Nansen Institute) 연구원 안네-크라스틴 요르겐센은 "두 차례 연속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양측 모두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일종의 '최후통첩'을 제시하면서 협상 난항이 심화했다"라고 분석하였다.

〈쿼터 감소와 어획 현황〉

2023년 러시아 선박은 노르웨이 EEZ에서 6만 1,100톤의 대구를 어획하였다. 반대로 노르웨이 선박의 러시아 EEZ 내 어획량은 2,000톤에 불과했다. 2025년 러시아 쿼터는 전년 대비 4만 8,400톤 감소한 15만 1,000톤으로 결정되었으며, Bloomberg에 따르면 이는 1991년 이후 최소치이다.

한편, 2026년 쿼터에 대해서는 해양학자들이 21% 추가 감축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협상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6일자
Fishnet.ru, 2025년 10월 13일자



대구, 더 이상 서민 생선 아니다

공급 절벽이 만든 프리미엄화

세계 대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소 2026년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 수산 분석가들은 이번 가격 상승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바렌츠해 어획 쿼터 축소로 인한 구조적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는 2026년 북극대구(Arctic cod) 총허용어획량을 26만 9천 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보다 낮은 수치다.

ICES는 “2021~2022년 세대의 대구 개체군 규모가 평균 이하로 평가되며, 자원 보존을 위해 어획을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2021년 부화 개체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문제다. 이는 대구의 주요 먹이 어종인 열빙어 자원량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과학적 권고에 따라 노르웨이, 러시아, 아이슬란드 등 북대서양 3대 어획국이 모두 쿼터를 줄이면서 세계 시장에 대구 공급이 급감했다.

노르웨이 수산판매조직(Norges Rafisklag)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냉동 대구 평균 산지가격은 92 크로네(10,300원)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신선 대구 가격은 같은 기간 32% 상승했다. 7월 ICES 권고 발표 직후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8~9월 사이에만 냉동 대구가 10% 올랐다. 이 추세는 10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Nordea Bank의 수산물 수석 분석가 핀-아르네 에게네스(Finn-Arne Egeness)는 “유럽 내 소비 회복

이 가격 상승을 자극했지만, 핵심 요인은 쿼터 감축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고 말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르웨이 원양어선들의 2025년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안 가공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2025년 들어 신선 대구 필레 수출은 전년 대비 50%, 냉동 필레 수출은 25% 감소했다.

이에 비해 염장·건조 대구 생산업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노르웨이수산위원회(NSC)에 따르면, 쿼터가 25% 줄었음에도 염장·건조 대구 수출은 연간 12% 감소에 그쳤다.

NSC는 “원료 수급에 대한 유연성과 시장의 높은 지불 의사가 결합해,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탄탄하게 유지됐다”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수출 추세는 상반된다. 노르웨이의 염장·건조 대구 수출은 포르투갈로의 물량이 전년 대비 3% 감소에 그쳤지만, 브라질로의 수출은 45% 감소했다. 이는 포르투갈 시장이 전통적 대구 바칼라우 소비국으로서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유지된 반면, 브라질 시장은 고가 부담으로 수입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ICES와 노르웨이해양연구소(IMR)는 “2027~2028년경에는 자원량 회복세에 따라 쿼터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기 아이슬란드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돼, 전체 공급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현상은 이미 소매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IQ(Nielsen IQ)에 따르면, 영국 슈퍼마켓의 대구 판매량은 12주 동안 6.5% 감소한 반면, 평균 소매가격은 7.7% 상승했다.

러시아의 2025년 10월 초까지 대구 총어획량은 23만 5천 톤(세 주요 어업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극동 지역의 대구 어획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영자원공사에 따르면, 2025년 10월 13일 기준 극동산 태평양 대구의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52% 상승해 1kg당 380루블, 북서지역(무르만스크 등)산 대서양 대구는 50% 상승해 510루블에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 '수산연합(Fish Union)' 산하 분석센터는, "2025년 1~8월 기준 주요 대형 유통망 6개사의 대구 필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매출은

13% 증가했다"라며 "필레 평균 가격이 26%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공급 축소, 자원 불확실성, 높은 소비자 지불의사가 맞물리며,

대구는 더 이상 '대중적 흰살생선'이 아닌 프리미엄 수산물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 수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가 흐름은 단기 조정 이후에도 최소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대구 수요가 견고한 유럽 시장에서는 다른 흰살생선(명태, 민대구 등)으로의 대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10월 17일자

中 대구 시장, 고가 행진으로 2026년에 둔화 예상

지난 수년간 급성장했으나 중국 경제에 영향 우려

중국 칭다오 수산물 수입·가공업체인 위닝 푸드 인터내셔널(Winning Food Int'l)의 조 차오(Joe Qiao) 사장은 수년간 연간 약 20%로 급성장한 중국 대구 시장이 2026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차오 사장은 현재 대구 소비량을 연간 약 1만 5,000톤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대서양 대구는 약 1만 톤, 태평양 대구는 5,000톤이다.

차오 사장은 "문제는 내년"이며, "원어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우려하였다.

대구是中国에서 인기 있는 가정용 식재료가 되었으며, 찌거나, 다지거나, 채소와 섞어 이유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차오 사장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중국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나라"이며,

"대구의 DHA 함량이 뇌 발달을 돕는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시 경제가 둔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오 사장은 높은 대구 가격으로 인하여 뉴질랜드산 새꼬리민태(hoki)를 대체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오 사장에 따르면 명태에 대한 내수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차오 사장은 수입산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의 약 40%가 연안 지역의 "신선 시장"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나머지는 재가공되어 재수출된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6일자



2026년 바렌츠해 대구美 명태 공급 등 감소 예상

저서어류 포럼 흰살생선 예상치 발표

10월 도쿄에서 진행된 2025 저서어류 포럼에서 2026년도 세계 흰살생선류 생산량 예측이 발표되었다. 대서양 대구 총 생산량이 2026년에 10%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큰 화두였다.

2026년의 자연산 흰살생선 생산량은 656만 4,000톤으로, 약 14만 5,000톤 감소가 예상된다. 대서양 대구 및 알래스카 명태가 예상 감소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북미 알래스카 명태 생산량은 1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서양 흰살생선 공급, 지정학적 문제로 타격 예상〉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바렌츠해 대서양 대구 쿼터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서어류 포럼 측은 해당 자원 생산량이 22% 감소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전망하였다. 포럼 측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양국의 대구 생산량 합계가 25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포럼 측은 노르웨이의 생산량은 25% 감소한 13만 1,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노르웨이의 2023년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포럼 측은 러시아의 대구 생산량을 21% 감소한 11만 9,000톤 수준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측대로라면, 아이슬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대의 대서양 대구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아이슬

란드의 2026년 대서양 대구 예상 생산량은 4% 감소한 20만 4,000톤이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예상 생산량보다는 확연히 많은 수준이다.

2026년에 대서양 대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지역은 그린란드(2,000톤 증가한 7만 1,000톤 예상)와 북미(1만 톤 증가한 4만 톤 예상)이다.

이러한 예상치를 모두 합하면, 2026년 세계 대서양 대구 생산량 예상치는 10% 감소한 64만 톤이다.

해덕대구 관련 예상치는 좀 더 희망적이다. 바렌츠해 해덕대구 생산량은 13% 증가한 14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노르웨이는 8만 톤, 러시아는 6만 2,000톤이다.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해덕대구 자원이 다소 개선되면서, 포럼 측은 2026년 해덕대구 생산량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노르웨이의 북대서양대구(Saithe) 생산량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 어종의 최대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2026년 생산량은 7,000톤 감소한 17만 3,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2023년 생산량과 비교하면 3만 톤 감소한 것이다.

북대서양대구의 2026년 전세계 생산량 예상치는 30만 톤으로, 올해 생산량인 31만 2,000톤 대비 감소하였다.



〈북미 흰살생선 공급 감소 예상〉

포럼 측은 알래스카 명태 및 태평양 대구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포럼은 북미 명태 생산량이 2026년에 10만 톤 감소한 130만 톤이 될 것이며, 세계 명태 공급량은 359만 4,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태평양 대구 생산량은 1만 4,000톤 감소하면서 2023년,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만 8,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는 알래스카 명태 및 태평양 대구 생산량 모두 2025년 수준인 206만 톤, 10만 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이론상 러시아는 2026년에 전 세계 명태 공급량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대구 생산량, 증가 지속 예상〉

해덕대구 외에 2026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산 흰살생선 어종은 남반구 주요 어종인 민대구(hake)와 새꼬리민태(hoki)이다.

포럼 측은 2026년 세계 민대구 생산량이 2만 1,000톤 증가한 105만 3,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가별로는 캐나다(1만 4,000톤 증가), 우루과이(7,000톤 증가), 칠레(4,000톤 증가), 페루(4,000톤 증가) 등이 전체 증가를 주도하였다.

남아공의 케이프민대구(Cape hake)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인 15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나미비아에서는 6,000톤 감소한 13만 3,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수준의 민대구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2026년 생산량 예상치는 각각 30만 톤, 23만 톤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 측은 2026년 세계 새꼬리민태(hoki) 생산량이 올해 대비 1만 2,000톤 증가한 15만 4,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에서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메기, 틸라피아 생산량 꾸준히 증가 예상〉

포럼 측은 틸라피아, 팡가시우스, 메기류 등 양식 흰살생선의 2026년 생산량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포럼 측은 베트남의 팡가시우스 생산량이 2026년에 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2026년 양식 메기류 전체 생산량은 193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의 양식 메기류 생산량은 각각 2만 4,000톤, 1만 8,000톤, 8,000톤, 6,00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세계 틸라피아 생산량은 2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6만 2,000톤 증가)와 이집트(4만 1,000톤)가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틸라피아 생산국인 중국의 2026년 생산량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올해(약 185만 톤) 대비 다소 증가한 1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22일자



러시아 북부 대구 TAC, 5년 연속 20% 감축 단기간 내 자원 회복 가능성 작아

러시아 북부 어업수역(Северный бассейн)의 대서양 대구 허용 어획량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2년 내에는 생물자원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포럼에서 일리야 라콥스키 까렐리아어업인연합회 회장이 발표했다.

라콥스키 회장은 “북부 해역의 주요 수출 어종은 대구와 해덕”이라며, “해당 지역의 수출업체들은 러시아 수산업 전반이 직면한 제재 관련 제약뿐만 아니라 어자원 급감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의 총허용어획량(TAC)은 지난 5년간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향후 1~2년 동안 자원량 회복 가능성을 거의 기대하지 않

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콥스키 회장은 “우리는 국제 협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0% 수준으로 쿼터 감축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과학자들의 예비 모니터링 결과는 TAC를 40%까지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실제로 40% 감축이 시행된다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어업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고, 이는 국내 및 수출 시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원료 감소는 대구뿐 아니라 다른 어종의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Portnews.ru, 2025년 10월 24일자

美 베링해 연안 B시즌 명태 쿼터 미소진 베링해-알래스카만 연육, PBO 생산량 증가

미국 알래스카 베링해 명태 어업의 연안 가공공장 부문 B시즌 쿼터가 10월 18일 시점까지 3만 5,981톤이 미소진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전미명태생산자협회(이하, GAPP)가 밝혔다.

GAPP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안 쿼터 33만 875톤 중 29만 4,894톤이 소진되었다. 다만 미 해양대기청(이하, NOAA) 수산국은 10월 1일 시작된 미국 행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주간 어획량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선상가공선은 같은 날짜까지 쿼터의 98%를 소진하였고, 모선 및 지역개발쿼터 그룹

은 이미 할당량을 완전히 소진하였다.

베링해와 알래스카만의 생산량은 10월 18일 기준으로 연육 17만 7,230톤, 가시제거(PBO) 필렛 12만 2,593톤을 기록하였다. 모두 2024년 연간 총 생산량을 넘어선 수치이다.

B시즌은 11월 1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소식통들은 악천후와 분산된 어장으로 인해 연안 부문이 약 2만~3만 톤이 미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27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2026년에도 견고한 가격 예상

무역·비용·자원 문제 등 영향

2025년 미국 알래스카 명태 도매 시장이 B 시즌 어획 부진, 어체 소형화, 생산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꾸준한 고정 수요와 대구, 해덕대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명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2026년 A시즌까지 견조한 시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차질 및 어획 부진〉

2025년 B시즌 조업은 예상보다 부진하였다. 어체 크기가 작아지고 필렛 수율이 낮아졌으며, 폭풍과 어군 분산으로 조업 여건이 악화하였다. 이로 인해 최대 2~3만 톤의 쿼터가 미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규격 생산에 집중〉

어체 크기가 작아지면서, 필렛 생산은 2~4온스, 4~6온스 등 소형 규격에 집중되고 있다. 가공업체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스(minced) 및 연육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견조한 가격 유지〉

이러한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싱글프로즌(Single-frozen, 어획 후 1회 동결한 제품) 필렛을 중

심으로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꾸준한 고정 수요와 높은 대체 비용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들은 장기적 물량 확보보다 필요한 물량을 방어적으로 구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한적인 관세 영향〉

미국-중국 간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은 예상보다 적었다. 중국에서 재가공되는 미국산 명태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 하락이 완화되었다.

〈2026년 전망〉

2026년에도 수요 및 가격은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 농무부(USDA)의 1억 달러 구매 프로그램이 재고 소진을 도울 것이며, 대구와 해덕대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명태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흰살생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어획량이 최대 10만 톤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공급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24일자





日, AI 활용 쾡치 크기 예측 서비스 도입 예정

기존 어장 위치 예측에서 쾡치 크기 예측까지 발전

일본 수산정보서비스센터(이하, JFISC)는 다음 어기부터 AI 기반의 새로운 예측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JFISC는 해양환경 및 어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부터 해수 온도 변화와 과거 어획 데이터를 분석해 AI로 쾡치 어장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예측 정확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단순히 ‘어장 위치’뿐 아니라 어획될 쾡치의 크기까지 구분해 보여주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새 시스템은 어획 가능 지역을 중량 기준으로 100g 미만(소형)과 100g 이상(중·대형)으로 나눈다. 지도 상에는 소형 쾡치가 예상되는 해역은 작은 점으로, 중·대형이 많은 해역은 큰 점으로 표시된다.

최근 몇 년간은 150g 이상 대형 개체가 거의 잡히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들어 대형

쾡치 어획이 늘면서 AI 학습의 정확도도 향상될 전망이다. JFISC 관계자는 “대형 개체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앞으로는 120g 이상 중형과 150g 이상 대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밀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측 정보는 온라인 해양정보 시스템인 ‘에비스군(Ebisu-kun)’을 통해 제공되며, 어민들은 당일과 최대 2일 후의 예상 어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 쾡치 어선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전국쾡치붕수망어업조합의 오이시 고헤이 전무는 “대부분의 어선이 에비스군을 활용하고 있으며, 크기별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면 조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The Japantimes.co.jp, 2025년 10월 12일자

中 선단-대만 선단, 공해 쾡치 어업 종료

할당량 모두 소진

10월 5일 시점으로 북태평양 공해 북부에서는 러시아 선단과 일부 외국 선단이 쾡치 조업을 진행 중이다. 대만과 중국 선단은 쾡치 쿼터를 모두 소진하면서 조업을 종료하였다.

현재 선단의 어장은 북위 40도 40분, 동경 149도 35분 부근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0월 9일자



日 콩치 어획량, 10월 18일 시점 약 4만 톤

2024년 전체 어획량 넘어섰으나 10월 들어 둔화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에 따르면, 8월부터 본격화된 일본 콩치 어업의 10월 18일 기준 누적 어획량은 3만 9,934.7톤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어획량(3만 8,947.3톤)을 넘어섰다.

올해는 초반부터 어황이 양호해 8월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4,987.2톤을 기록했고, 9월은 2.4배에 달하는 2만 3,502.6톤으로 크게 늘었다.

10월 들어 어획 속도가 다소 둔화했으나 하루 500~1,000톤 수준이 지속되며, 네무로·하나사키, 게센누마, 오후나토 등 주요 항에 약 1,000톤 이상이 양륙되는 날도 있었다. 현재 일본 EEZ, 공해, 러시아 수역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 선단은 조업 가

능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10월 19일 기준 러시아 수역 조업 허가 선박은 총 64척 중 54척이 조업했고, 일부 대형선은 이미 허용량의 90%를 어획했다.

러시아 수역 조업은 10월 말까지로, 향후 중·소형선 중심 조업이 예상된다. 공해 어장은 네무로·하나사키 남동쪽 약 430km에 위치하며, 어획되는 콩치는 110~130g 및 40~80g급 비중이 높고, 1세어가 약 20~30% 수준이다.

가격은 10월 18일 kg당 평균 212엔으로, 최근 209~294엔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0월 22일자

日 게센누마 콩치 어획 전년 대비 3배 급증

게센누마시 6년 만에 콩치 축제 재개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서 6년 만에 '태평양 콩치 축제'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콩치 어획량 감소로 2020~2024년 5년간 중단됐던 이 행사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콩치의 품어와 어업·관광 산업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축제는 19일 게센누마 어항 인근에서 열렸으며, 현장에서 잡은 약 150g 크기의 콩치 1,000마리를 숯불에 구워 무료 제공했다. 또한 1,000엔을 내고 얼음물 통에서 콩치를 맨손으로 잡아가는 이벤트도 마련돼, 일부 참가자는 20마리 이상을 획

득해 화제가 됐다. 게센누마 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순 기준 콩치 어획량은 약 2,600톤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부진했던 어황이 호전된 결과로, 축제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센누마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이후 관광 기반을 복구하며 지역경제 재건에 힘써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역 수산업의 회복과 북동부 어장의 자원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10월 21일자



러, 중국산 수산물 수입 25% 증가

국내 어획 부진 대응 속 냉동 어류 수입 급증

러시아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과 어류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물량 기준 25%, 금액 기준 15% 증가하였다. 총 수입량은 약 6만 5천 톤, 금액은 2억 7,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수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국내 어획량 감소와 소비자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냉동 고등어 수입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1만 5천 톤,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러시아 국내 고등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2025년 들어 러시아 국내 어획량은 회복세를 보여, 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또한 냉동 전갱이 수입도 물량 기준 40%, 금액 기준 80% 증가해 8천 톤, 1,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최고치 이후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통조림 등 관련 수요가 높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냉동 송어 역시 수입이 급증하였다. 올해 8개월 동안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배, 금액 기준 2.3배 증가해 4,500톤, 4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높은 소비 수요와 터키산 송어 공급 감소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구운 장어 필렛 수입은 10% 감소해 2,500톤, 3,1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기록적인 수입 이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냉동 기름가자미 수입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4천 톤을 기록하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인 1,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소폭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건오징어 수입은 물량 기준 25% 감소하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5% 증가해 3,500톤, 3,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기록적인 공급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 세계 중국 수출량의 약 2%를 차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는 “중국산 수산물은 러시아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인기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Intrafish.com, 2025년 9월 29일자





제재 문제로 노르웨이-러 바렌츠해 쿼터 불투명

JNRFC 회의 소집 불확실

노르웨이가 러시아 측이 제시한 러시아 기업 제재 해제 요구 시한이 지났음에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노르웨이-러시아 바렌츠해 공동 쿼터 설정이 불확실해졌다.

노르웨이는 7월 7일 러시아 최대 수산 회사인 노레보와 또 다른 주요 업체인 무르만 시푸드의 선박에 대해 노르웨이 수역 진입 금지 제재를 가하였다.

이 조치는 5월 20일 EU 집행위원회가 두 기업의 스파이 혐의를 주장하면서 진입 금지 제재를 가한 것에 뒤이은 것이다. 노레보와 무르만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하나로 이전에 조업 및 하역을 위해 활용했던 노르웨이 항구와 해역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였다.

러시아는 노르웨이 측에 해당 제재 조치를 9월 27일까지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응답은 없었다.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이하, JNRFC)는 10월 말에 회의를 소집하여 바렌츠해의 대구, 해덕대구 및 기타 어류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JNRFC 회의는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열리며, 이 협력은 1976년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최대 수산 회사 중 한 곳의 고위 임원은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회의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10월 6일 JNRFC의 ‘임시 회의’가 열렸으나, 진전 방안에 대한 합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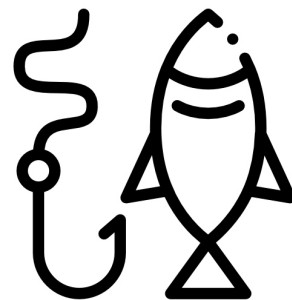
없었다고 전하였다.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기사 발행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르웨이 관계자는 러시아 선단이 자국 수역에서 어린 개체를 남획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유럽 관계자도 이에 동조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쿼터 설정은 해당 어업의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을 의문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10일자





러 제재 확대, 페로제도 수산업 불안 야기

무역과 생산 동반 타격 불가피

페로제도가 러시아 수산 대기업에 대한 제재 동참 여부를 두고 논의하면서, 현지 원양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로제도 의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외교·산업·무역부 장관이 제출한 제재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해와 관련된 제재 범위를 넘어, 정부가 더욱 광범위하게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EU와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며, 러시아의 주요 수산기업인 노레보(Norebo)와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가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수산 쿼터다. 러시아 트롤어선은 페로제도 수역에서 청어(50% 이상), 청대구(30%), 고등어(30%)에 이르는 막대한 어획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선박의 페로제도 수역 내 예상 어획량은 약 8만 9천 톤으로, 이 중 7만 5천 톤이 청대구이다. 무르만 시푸드 소속 어선들도 현재 페로제도 해역에서 조업권을 가지고 있다.

페로제도 업체는 러시아 선박이 제재로 인해 조업권을 잃게 될 경우,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JFK社의 CEO 하누스 한센은 “수산업은 전쟁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단지 생선을 잡고 식량을 공급할 뿐이다”라며, 러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가 끊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신뢰 관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페라고(Pelago)사의 요한 팔 요엔센 대표 역시, 제재는 페로제도의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식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무역 경로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러시아산 흰살생선(대구, 명태 등)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노르웨이를 통한 우회 수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레보와 무르만 시푸드 제재는 대구와 명태 공급을 압박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었다.

※ 출처: Intrafish.com, 2025년 9월 29일자





美 외식 소비자, 소고기 대체재로 수산물 주목 밀레니얼 세대 수산물 소비 증가세

미국 식품산업 컨설팅 업체인 테크노믹(Technomic)의 조 폴락 대표가 발표한 소비자 분석 내용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수산물, 특히 알래스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품질, 건강, 맛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폴락 대표는 지난 11월 초 열린 알래스카 수산마케팅협회(ASMI) 행사에서, 수산물이 '미국인들이 더 자주 먹기를 원하는 단백질'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수산물 소비를 늘리길 원하는 응답자는 4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닭고기, 견과류, 콩 등 다른 단백질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인기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믹의 2024년 외식 소비자 연구에 기반한 이 데이터는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년간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세대)는 수산물 소비가 순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Z세대(1997~2012년 출생 세대)는 7포인트에 그쳤고, 기성세대는 변화가 없었다.

외식(식당, 대학식당, 카페테리아 등 포함)에서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는 "수산물이 다른 단백질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응답자들은 외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품

질과 맛이 더 좋다는 점과 요리 종류가 다양해진 점을 꼽았다.

약 28%는 현재 레스토랑의 수산물이 과거보다 맛이 좋아졌다고 답하였으며, 거의 비슷한 수가 다양성과 조리법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많은 소비자가 쇠고기, 돼지고기, 식물성 버거육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도 답하였다.

수산물의 건강과 맛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었으나, 가격 접근성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테크노믹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가격 접근성이 다른 단백질보다 10포인트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기성세대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폴락 대표는 실제로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쇠고기 메뉴 등의 체감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는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건강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라는 이미지, 그리고 미국 자국산 식품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폴락 대표는 업계가 고가의 쇠고기와 비교한 수산물의 상대적인 가격 합리성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조리법을 홍보하며, 구매 결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1월 11일자



日, 세계 1위 어업국에서 수입국으로

원양 어획 쇠락과 양식 산업 도전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주요 어업국으로, 한때 세계 1위 어업 대국으로 평가받았다. 1965년 약 700만 톤이던 총 어획량은 1988년 1,28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어선 수는 42만 척, 총 톤수는 250만 톤에 달했다. 인구 1인당 연간 어획량도 약 100kg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산물은 일본 식문화의 핵심을 차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인은 육류 섭취가 거의 없어 어류가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현재도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약 40%를 수산물이 차지한다. 생선을 날로 먹는 문화가 발달했으며, 쌀과 간장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약 520만 톤으로 줄어 중국, 페루, 인도 등 후발국에 추월당했으며,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1990년대 중반 기준 일본은 연간 20만 톤 미만을 수출했으나, 수입량은 300만 톤을 넘었다.

일본의 어업은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으로 구분된다. 연안어업은 12해리 이내에서 소형 어선과 전통 어구를 활용하며, 홋카이도, 혼슈 동북부, 혼슈 서해안, 시코쿠·규슈 연안 등이 주요 거점이다. 어획물은 경매를 통해 신속히 유통되며,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어업은 부업 성격도 강하다. 근해어업은 일본 EEZ 내에서 중형 어선을 중심으로 조업하며, 난류인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참치, 고등어, 정어리 등이, 한류인 오야시오 해역에서는 청어, 대구 등이 주로 잡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구역에서도 정어리 등 일부 자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원양어업은 대형 선단을 투입해 공해 및 외국 EEZ에서 조업하나, 1970년대 이후 EEZ 체제 확립으로 태평양·인도양·대서양의 광범위한 어장 접근이 어려워지며 쇠퇴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일본은 해양양식에 주목했다. 일본의 양식 기술은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공 산란장, 해중 목장, 인공 어초 건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연안 어획량을 크게 늘렸다. 1980년대에는 32종 어류, 15종 갑각류, 21종 연체동물이 양식됐으며, 현재 굴, 가리비, 돔류, 연어, 새우, 진주, 해조류 등이 대표 품목이다. 연어 자원 복원 사업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매년 10억 마리 이상의 치어를 방류해 연간 10만 톤 이상을 생산했으며, 방류 치어 1kg이 성어 80kg으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혼슈 남부 해역은 전통 해녀 문화와 결합한 진주 양식으로 유명하며, 인공 양식을 통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양식업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약 200개의 양식 시설과 3천만 헥타르 연안 수역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양식업은 소규모 영세업이 아닌, 조직적·대규모 경영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제적으로도 기술력과 생산 구조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본 양식업은 감소하는 수산 자원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생산을 유지하며, 일본 국내 식문화 유지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출처: Studopedia.su, 자료 작성일 미상



美 MZ·Z 세대, 수산물 소비 동향 이끈다

90%가 수산물 권장 소비량 미달...육류와 같은 접근성 필요

글로벌 농업·사료 기업 카길(Cargill)의 수산 부문 책임자 구스타보 라라는 최근 미국 비영리단체 ‘시푸드 뉴트리션 파트너십(Seafood Nutrition Partnership)’이 개최한 행사에서 수산물이 더 널리 소비되기 위해서는 ‘접근성·혁신성·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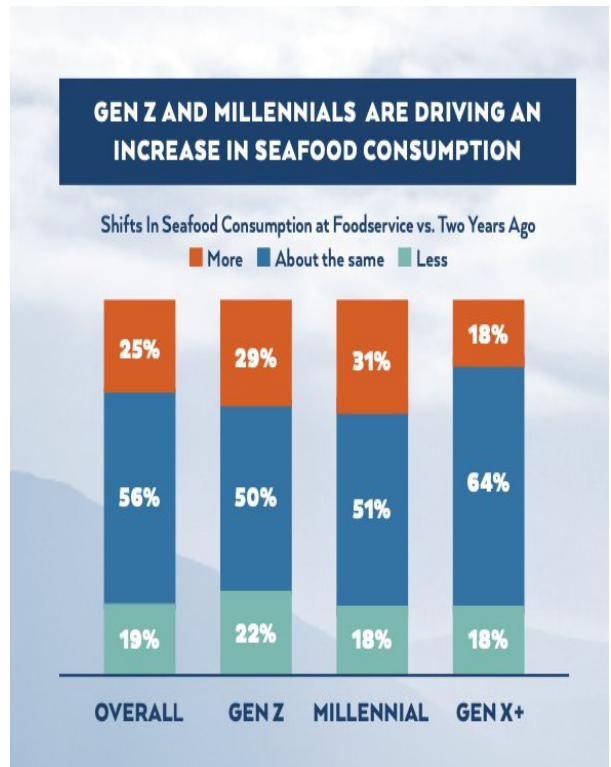
라라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의 가장 큰 소비층은 고소득의 Z세대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미국인은 권장 섭취량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인의 90%가 최소 연 1회는 수산물을 먹지만, 그 가운데 80~90%는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를 “소비 빈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더 자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이 닭고기처럼 패스트푸드, ‘데워먹는 간편식’, 학교 급식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 제품은 냉동 새우, 참치 통조림, 피시스틱 등 전통적인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가 건강에 이롭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산물은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는 요리적 다양성,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라라는 마지막으로 업계와 정부, 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아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캠페인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수산물이 미국인의 식탁에 당연히 오를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t.ru, 2025년 9월 30일자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수산물 무역 재편

가격 상승, 공급 불균형 심화

네덜란드 금융기관 라보뱅크(Rabobank)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무역 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면서 글로벌 수산물 산업은 심각한 불안정 시기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수산물 제품에 대한 관세와 제재가 무역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 세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제목은 “해류에 휘말리다: 지정학이 전 세계 수산물 산업을 위협하다”로, 미국을 이러한 혼란의 핵심 동력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수산물인 새우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특정 새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를 겨냥한 조치다. 그 결과 수출업체들은 대량의 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야 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졌다.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영향 〉

- 연어: 생산 주기가 길고 신선한 배송에 의존하는 고가 어종으로, 무역 조치에 매우 취약하다. 라보뱅크는 캐나다 연어 수출의 87%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신규 투자 둔화와 세계 최대 수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 상승,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민물고기: 틸라피아와 팡가시우스 등 주요 종의 거래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틸라피아에

75%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를 사실상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틸라피아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수출업체들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시장으로 제품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 저서어류: 러시아산 생선에 대한 제재는 저서류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이 조치로 국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유럽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연육 과잉 생산이 발생해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보뱅크는 전체 수산물 부문이 장기적인 불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제한하고 전략적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새우와 민물고기 부문의 아시아 생산자가 혼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소비자는 소매 가격 상승과 제품 선택권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라보뱅크는 기업들이 공급원과 판매 채널의 다각화를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산물과 같이 비용에 민감한 부문에서는 이러한 전략 실행이 쉽지 않지만, 내수 시장의 강세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정학적 요인이 수산물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전례 없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 출처: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25년 9월 30일자



러, 수산가공산업 구조 전환 가속

명태·청어 중심 가공 체계 구축

러시아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에 '기드로스트로이(Гидрострой)'사의 신형 수산가공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연방 정부의 투자쿼터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의 총 투자액은 약 37억 루블(약 560억 원)이며, 공장은 1만㎡ 부지에 하루 최대 700톤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000톤 규모 냉동 저장시설과 자동화 포장 시스템을 갖춰 최대 2년 보관 가능한 고품질 냉동 수산물 생산할 수 있으며, 명태·대구·청어를 비롯한 가공 제품과 하루 30톤 규모의 어분·어유도 생산된다.

공장에는 지역 주민과 대학·기술학교 졸업생 등 약 250명이 근무하며, 항만 수역 수리시설 확충으

로 수심이 2.5m에서 5.5m로 깊어져 한 번에 최대 200톤의 수산자원 하역이 가능해졌다.

1991년 설립된 동 회사는 사할린·쿠릴열도·연해주 일대에서 원양·연안 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인공종묘 생산, 건설, 생태관광 등을 수행하며, 전체 종사자 약 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조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연방정부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번 공장 건설로 '기드로스트로이'는 연간 2만 7천 톤 규모의 명태·청어 어획권을 확보하였다.

※ 출처: Fishportal.ru, 2025년 10월 2일자

러, 어업·가공업의 회복세 뚜렷

양식업의 이익률은 1/3로 감소

2025년 상반기 러시아 수산업은 부문별로 상반된 성과를 보였다. 러시아어업연합(Fishery Union)에 따르면, 양식업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지난해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전이익은 3.5배 급감했다. 이에 따라 양식업에서 흑자를 기록한 기업 비중은 57%에 그쳤다. 평균 수익률은 35%로 나타났다.

반면 어업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기준 제품 수익률은 전년 대비 1.6배 상승한 33%를 기록했고, 세전이익은 86% 증가해 약 740억 루블에 달했다. 수익을 낸 기업 비율도 68%로 늘어났다. 수산가공업 부문도 개선세를

보여, 제품 수익률 15%, 세전이익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으며, 전체 업체 중 74%가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양식업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높은 생산비와 사료비 부담을 꼽았으며, 어획·가공 부문은 자원 접근성과 수출 수요 증가 덕분에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양식 자급률을 80~9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료 산업 자립과 양식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10월 21일자



日, 수산물 자급률 52%로 사상 최저 기록

60년간 하락세 지속되어 수입 의존 구조 심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기준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이 52%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수산청(Fisheries Agency)에 따르면, 이는 전년(54%)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1960년대 이후 이어진 장기 하락 추세의 연장선이다. 수산물 전체 자급률은 52%였으며, 해조류는 홋카이도 등 북부 지역 다시마 생산 부진으로 61%로 낮아졌다.

국내 식용 어류·패류 생산량은 2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11만 7,000톤) 감소했다. 가다랑어·꽁치 어획 증가분은 가리비, 태평양 정어리, 연어 등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했다. 반면 수입량은 연어 및

새우류 증가로 288만 톤으로 1.1% 증가했으며, 수출은 가리비·대구 수출 급감과 2023년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영향으로 53만 톤,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국내 소비량은 497만 톤으로 1% 감소했다.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은 1960년 111%에서 1980년대 초 100% 아래로 떨어졌고, 1985년 87%, 1995년 69%, 2000년 59%, 2010년대 55% 수준을 유지하다 이번 회계연도 최저치를 기록하며 60년 넘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10월 15일자

러 어선단 현대화 정책, 현실적 제약 직면

2030년까지 노후 선박 교체 이행 어려워

러시아 어선 소유주들이 부채 증가와 고금리 부담으로 올해 선단 전반의 손실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어획 쿼터를 배분 받는 상업 기업이 노후 선박 현대화를 위해 신규 어선을 건조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30년까지 선령 40년을 초과한 어선을 모두 등록 말소할 계획이다. 쿼터 경매 기업이 신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해진다.

그러나 기준금리 17% 상황에서 어선 소유자들

은 월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감당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국제 제재로 수출 시장이 위축돼 외화 수입이 감소한 점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러시아전국수산협회(VARPE)는 현재 어선의 3분의 2 이상이 선령 30년을 초과했으며, 2030년까지 전면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 금융 조건에서는 신규 선박 대출 상환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10월 21일자



美, 수산물 소비 25년째 제자리

관세전쟁 속 소비 위축 심화로 소비자 신뢰와 교육 필요

미국의 수산물 소비가 지난 25년 동안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인의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다”라며, 그 이유로 소비자의 친환경성 불신과 정보 부족을 지목했다.

미국은 자국 내 소비되는 수산물의 약 65~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전쟁’이 수입 가격 상승을 불러오면서, 수산물은 점점 더 고가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요인은 이미 정체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수산물의 출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는다. 현재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는 MSC(해양관리협회의) 등 지속가능성 인증제도가 확립돼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어업국들—특히 러시아수산업연합(ACPΦ) 회원사들도—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춰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이 무엇인지’, ‘내가 먹는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트리스탄 라이트(Tristan Wright)는 “고객이 수산물에 대해 질문할 때, 레스토랑이 즉시 답변하거나 셰프와 연결해 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열린 소통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 속에서도 레스토랑들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라이트 셰프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지역 어종 활용 확대와 ‘코끝부터 꼬리까지(From nose to tail)’ 소비 문화 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필레 외에도 생선의 머리, 볼살, 뱃살 등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 식재료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제 우리는 수산물의 가치와 소비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며, “필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맛있는 부위가 많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왜 수산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은 수산물 섭취의 건강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수산물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의 아이는 IQ가 평균 7~9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어류를 섭취하면 불안감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위험,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 뇌졸중 위험이 각각 50%, 22%, 40%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명확한 정보 제공이 결합할 때,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정체된 수산물 소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미국의 수산물 시장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 안정보다 ‘신뢰 회복과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 출처: Fishnet.ru, 2025년 10월 16일자



세계 해양 점진적 기능 상실 경고

해수 표층 온도 상승으로 해양 생산성 저하 확인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해양의 녹색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에 따르면, 광합성을 담당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녹색 색소인 엽록소(Chlorophyll) 수치가 감소하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저위도와 중위도 해역에서의 일일 엽록소 농도를 분석했다. 위성 자료와 '모니터링 선박' 데이터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 해양의 녹색도는 연평균 약 0.35 마이크로그램/㎥ 감소했으며, 특히 연안에서는 두 배, 강 하구에서는 네 배 이상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해수 표층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층의 따뜻한 물과 심층의 차가운 물 사이 온도 차가 커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필요한 영양분의 수직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 칭화대학교의 디 롱(Di Long) 연구원은 "표층 식물성 플랑크톤의 탄소 흡수 능력 감소는 탄소 순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마이클 만(Michael Mann)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해양 생산성 감소를 나타내는 해양 녹색도 저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연구"라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감소율은 약 0.088%, 즉 약 3,200만 톤의 탄소에 해당한다. 과거 연구는 이보다 제한적인 데이터와 짧은 시간 범위를 다뤘으나, 이번 연구는 보다 장기간·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며, 농업 유출수, 하수 방류, 산림 벌채 등 인간 활동 요인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대규모 심각한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해양 생산성과 탄소 흡수 능력 감소가 파리협정 등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 롱 연구원은 "이번 결과로 인하여, 향후 글로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이 지구 생태계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닌 점진적이지만 뚜렷한 기능 상실, 즉 녹색도와 생산성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먹이사슬, 산소 수준, 해양 생태계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러연방천연자원감독청, 2025년 10월 21일자



세계 수산물 생산 70년간 10배 증가

고부가가치 제품과 전략적 물류로 세계 시장 대응 필요

쌍트베제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포럼 원탁회의에서는 세계 수산물 및 양식업 생산 증가 추세와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FAO 러시아 지부장 올렉 꼬바코프는 지난 70년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50년 1,900만 톤에서 2023년에는 1억 8,900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2%가 양식업에서 나왔으며, 향후 산업 성장은 주로 양식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양식업 생산 비중은 아시아가 65%로 가장 높고, 라틴아메리카가 29%, 유럽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18%, 오세아니아 15%, 북미 10%로 나타났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주요 지역의 비중은 아시아가 72%로 가장 크며, 유럽 9%, 라틴아메리카·카리브 8%, 아프리카 7%, 북미 3%, 오세아니아 1%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 9%, 인도네시아 7%, 베트남 5%, 러시아 3%를 기록했다. 한편, 해조류 생산량은 3,900만 톤으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동물성 수산물 생산보다 높다.

러 수산청 부청장 안드레이 야코블렘은 러시아 수산업 전략의 핵심 목표를 단순한 생산 증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

급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공 기술 개발, 양식업 확대, 물류 인프라와의 통합, 특히 북극해 항로 활용이 필요하며, 국내 시장에도 질 높은 수산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와 수출 전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식품산업협회 회장 미하일 씨네프는 냉장 컨테이너 보유량 증가를 통해 국제 물류망 공백을 보완하고, 국내 및 해외 수출 노선을 개설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며, 전략적 시장으로는 친선 국가 및 결제 가능 시장과 중국, 인도,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주목된다. 러시아 아프리카 연구소의 글렘 쭈가코프는 아프리카가 수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며, 러시아-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출처: Fishnews.ru, 2025년 10월 23일자





러 수산업 수익성, 4년 만에 63→26% 급락

10년간 어획량 9% 증가, 수출 의존 구조로 수익성 저하

러시아 어업 및 양식업의 수익성이 2021년 63%에서 2024년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년 상반기에는 수익성이 33%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포럼(Global Fishery Forum & Seafood Expo Russia)에서 회계·컨설팅 기업 '테도(TeDo)'의 일리야 쓰프로킨 전무이사가 발표했다.

쓰프로킨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러시아 수산업은 어획량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어획량은 약 9%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어획 및 수산가공 부문 모두에서 수익성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익성 저하는 현재 업계에서 진행 중인 여러 투자 프로젝트, 특히 전략적 투자사업의 실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쓰프로킨 전무이사는 수출이 러시아 수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업계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향후 수출 부문에는 여러 구조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주요 리스크는 재정 부담(세제 강화 가능성)과 국가 지원의 축소 가능성이며, 특히 어류 및 수산물에 대한 수출 관세(수출세)의 부활이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핵심 수입 설비의 조달 비용 및 납기 지연, 투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 그리고 전통적 유통 채널에 대한 제재 압박 등을 러시아 수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 출처: Portnews.ru, 2025년 10월 24일자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 스: 02-589-1630/1631 ○ 메 일: kosfa@kosfa.org



러, 선령 40년 제한 시 500척 퇴출 위기

노후 어선 교체 정책 재검토 필요

러시아연방수산청(Росрыболовство)은 선박의 운항 연한을 선령 기준으로 강제 제한할 경우, 러시아 어선단의 약 500척이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수산청장 일리야 셰스타코프(Илья Шестаков)는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포럼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금 강제로 연한 제한을 도입한다면 약 500척이 퇴출될 수 있다. 여기에 연구선, 냉동선, 운반선 등 보조 선박도 포함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렇게 많은 선박을 새로 건조할 능력이 국내 조선소에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박이 러시아 선급 검사를 통과해야 항해가 가능하며, 이미 많은 선박이 현대화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셰스타코프는 “운항 연한 제한에 관한 제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여러 산업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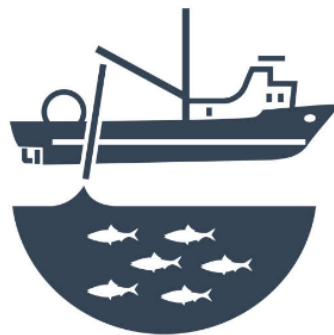
앞서 세바스토폴과 크림 지역의 어업인들은 40년 이상 된 선박의 러시아 항만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업 중단 위험을 경고하는 서한을 러시아 농업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 러시아통합조선공사(OSK)는 203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산업부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방수산청은 “선령을 기준으로 어선의 운항을 중단하면, 특히 아조프·흑해 및 볼가-카스피 어업수역

에서 수산자원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수산청은 대안으로 국내 조선산업 발전 촉진, 어선 현대화에 대한 국가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연방수산청은 이미 어업 복합체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16년에는 ‘투자 쿼터’ 제도를 도입해 러시아 최초의 민간 선박 현대화 종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47척의 현대식 어선이 건조됐고, 현재 35척의 어선과 15척의 계 조업선 건조를 포함한 50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6척의 계 조업선과 8척의 어선(이 중 4척은 냉동 운반선) 건조가 계획돼 있다.”

※ 출처: Interfax.ru, 2025년 10월 23일자





러 수산업, 행정 및 재정 부담 완화가 생존의 관건

수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분야

하바롭스크 수산업협회(AIPOXK)가 올해 10월 15일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지난 15년 동안 협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수산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협회장 쎬르게이 라브첸코는 러시아 수산 전문매체 Fishnews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라브첸코 회장은 협회의 출범 배경을 “정부 기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까지 하바롭스크 지방정부 수산위원회를 이끌었으며, 2018년부터 협회를 직접 맡아왔다. 현재 협회에는 약 40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방뿐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협회의 주요 성과로 △해조류 어획 문제 해결 △하바롭스크 수산위원회 재활성화 △적색어란 항공 반입 제한 도입 △국가 환경심사법 개정 참여 등을 꼽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협회는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법 어획 방지 및 자원 보존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협회장은 최근 논의 중인 수산물 거래소 의무화에 대해 “수산물은 본질적으로 거래소 상품이 될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획물의 25%를 조직화한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는 “이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행정 장벽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수산물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의무적 제품 표시제 확대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협회장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극동 지역에서 제품 디지털 표시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계속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미 고비용 구조 속에서 버티고 있다”라며 “업계의 47%가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장은 앞으로 정어리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대신 품치가 그 부족분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아무르강 연어 자원은 서서히 회복 중”이라며, 과학 연구와 규제 조치(금어기, 어구 제한 등)가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역 내 40개 회원사뿐 아니라, 극동 어업협의회 및 연방 수산청 자문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협회장 “정부와 기업, 과학기관이 함께 문제를 논의할 때 산업 전체의 신뢰가 높아진다”라며 “협회의 역할은 단순한 이익 대변이 아니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정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분야”라며 “정부가 산업의 자립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 열린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Fishnews.ru, 2025년 10월 14일자



통조림, 생존식에서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통조림 이미지 현대화로 소비 트렌드 대응

러시아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 로스콘(Роскон)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을 위해 제품 혁신과 브랜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알렉산드르 레베데프 대표는 자사 제품이 과거 '생존용 식품' 이미지를 벗어나 현대적 소비 트렌드에 맞춘 '트렌디하고 건강하며 편리한' 수산식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콘은 전략 방향을 트렌디함, 건강함, 편리함으로 정리한다. 먼저 트렌디함 전략은 젊은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다. 샐러드용 통조림이나 특별 소스 첨가 제품 등 다양한 포맷을 선보이며, 통조림을 파스타, 피자, 샌드위치 등 퓨전 요리에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밝고 단순한 패키지와 이지오픈(Easy Open) 뚜껑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건강함 전략에서는 자체 조업선에서 확보한 원료를 한 번만 냉동하고 특수 해동 기술을 적용해 품질 손실을 최소화한다. 참치, 대구 등 저칼로리·무GMO 제품을 중심으로 건강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물의 영양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편리함 전략은 현대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다. 1분 간편식 형태의 즉석 섭취 제품을 제공하며, 통조림의 긴 보관 기간과 냉동 불필요성을 활용해 《오존(Ozon)》, 《와일드베리즈(Wildberries)》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장됐다. 대서양산 고등어와 정어리를 주력으로 하면서 줄삼치, 대구, 참치 등 15종 이상의 어종을 가공한다. 특히 줄삼치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인기를 얻은 뒤, 소셜미디어 《피카부(Pikabu)》의 밈 확산으로 전국적 수요가 증가했다.

로스콘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 수출 자격을 획득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 인접국으로 판매 범위를 넓혔으며, HACCP 인증을 기반으로 각국 소비자에 맞춘 맞춤형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도 병행된다. 포장라인 자동화로 생산 속도와 비용 효율을 높이고, 위생 기준 강화를 위해 공기 소독 기술을 도입했다. 레베데프 대표는 “브랜드 ‘리브노예 메뉴(Рыбное меню)’를 고품질 제품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로스콘의 전략은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수산식품의 현대적 이미지 구축, 젊은층 확보, 온라인 유통 확대, 해외 진출, 생산 혁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 수산물 산업 내 브랜드 재편과 시장 성장의 신호탄을 마련하고 있다.

※ 출처: Fishnews.ru, 2025년 10월 6일자



수산물 소비, 제공 형태에 달려 있어

소비 유도 상품 제공을 위해 기술 투자 필요

오늘날 수산물 소비 증가의 핵심은 어획량이나 가격보다 필레·어육·반가공품 등 고차 가공품 확대와 매력적인 포장 개발과 같은 제품 형태 변화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상원은 제재 환경 속에서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미핀 상원 부위원장은 어획량 6%, 가공품 생산 5% 감소는 심각한 신호라며 소비·유통 구조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의 필레 생산은 23만 톤, 어육은 10만 3천 톤이며, 무폐기물 생산기술 도입으로 어분 생산은 60% 증가했다. 그리

나 그는 어획 감소 상황에서 2030년 1인당 소비 28kg 목표 달성 가능성을 우려했다.

원탁회의에서는 가공산업 지원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됐다. 89개 연방주체 중 19개 지역만이 가공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운영하며, 이는 고차 가공품 비율과 소비 증가율과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러시아의 1인당 소비량은 약 23.4kg으로 정부 목표치인 28kg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 출처: Rusfishjournal.ru, 2025년 10월 1일자

러, 2025년 어획량 전년 대비 최대 5% 감소 전망

기후변화가 어획에 직접적 영향 제공

러시아연방수산청은 2025년 러시아 전체 어획량이 전년 대비 2~3%, 최대 5%까지 감소해 약 470만 톤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스타코프 청장은 북부 대구 감소는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예측된 현상이며, 명태 어획은 빠르게 진행돼 연간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명태는 러시아 전체 어획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종으로, 2024년 어획량은 199만 톤, 수출은 80만 톤을 넘어섰다.

전체 어획량 감소 폭은 극동 정어리 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어리 어군을 확보할 경우 감소폭은 2~3%에 그치겠지만 찾지 못할 경우 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산청은 설명했다.

2024년 러시아 어획량은 490만 톤으로, 2023년의 530만 톤에서 감소했으며,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약 500만 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 출처: Interfax.ru, 2025년 10월 23일자



그리운 바다(Sea Fever)

존 메이스필드

나는 다시 바다로 가리, 그 외로운 바다와 하늘로 가리
 내가 바라는 것은 큼직한 배 한 척과 길잡이 별 하나면 그뿐;
 기관의 진동과 바람의 노래, 흰 돛의 흔들림,
 회색 안개가 바다 얼굴을 덮고, 회색 새벽이 밝아오는 풍경.

나는 다시 바다로 가리, 흐르는 물결이 부르는 소리
 그 부름은 거절할 수 없는 거칠고 맑은 소리;
 내가 바라는 것은 흰 구름이 날리는 바람 부는 날,
 훑날리는 물보라와 휘날리는 물거품, 그리고 울어대는 갈매기가 있으면 그뿐.

나는 다시 바다로 가리, 정처 없는 집시처럼,
 칼날 같은 바람 부는 갈매기의 길과 고래의 길로 가리;
 내가 바라는 것은 동료 선원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고단한 당직 업무가 끝난 뒤의 깊고 달콤한 꿈만 있으면 그뿐.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to the lonely sea and the sky,
 And all I ask is a tall ship and a star to steer her by;
 And the wheel's kick and the wind's song and the white sail's shaking,
 And a grey mist on the sea's face, and a grey dawn breaking.*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for the call of the running tide
 Is a wild call and a clear call that may not be denied;
 And all I ask is a windy day with the white clouds flying,
 And the flung spray and the blown spume, and the sea-gulls crying.*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to the vagrant gypsy life,
 To the gull's way and the whale's way where the wind's like a whetted knife;
 And all I ask is a merry yarn from a laughing fellow-rover,
 And quiet sleep and a sweet dream when the long trick's over.*



10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85% 감소, 수입량 28% 감소

❖ 생산동향(10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 줄면서 전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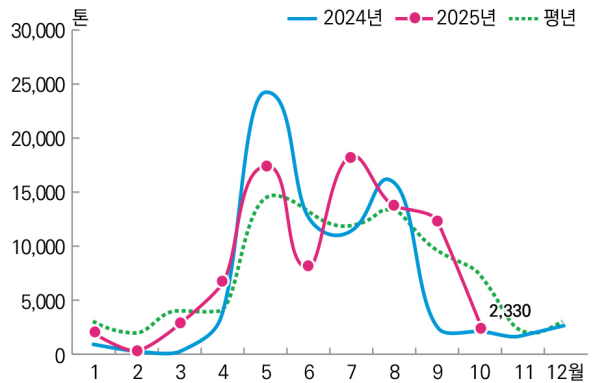
10월 오징어 생산량은 연근해산 생산 및 원양산 반입량 줄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11.6% 많았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추석 연휴 및 기상악화로 조업일수 줄면서 전월 대비 85.3% 감소한 926톤이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1.8% 적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채낀기, 트롤, 안강망 등 다양한 어업에서 위판량이 많았던 남해권 위판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았으며, 서해권은 위판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404톤으로 전월 대비 76.6% 감소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55.5% 늘었다.

한편, 10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반입량은 5만 3,456톤으로 평년보다 6.6% 많았으나, 작년 동기간보다는 15.1%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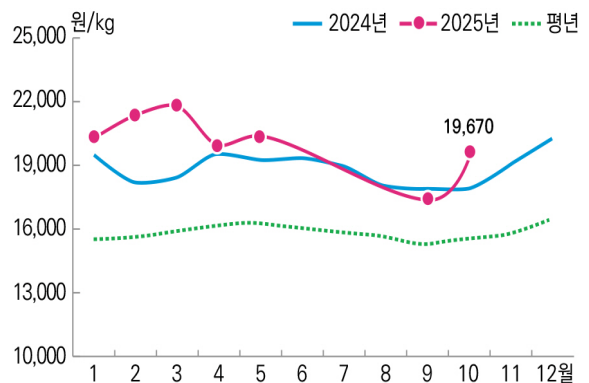
❖ 가격동향(10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9,794원으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지 않아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오징어(신선냉장)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8.8% 상승했다.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연근해산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월 대비 37.4% 상승했다.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 또한 전월 대비 12.4% 상승한 kg당 19,670원이었다.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원양산 반입량이 줄면서 전월 대비 2.6% 상승했다.





❖ 수출입동향(10월 오징어 수출입량 전월 대비 감소)

10월 오징어 수출량은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전월 대비 59.7% 감소한 2,128톤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3.0%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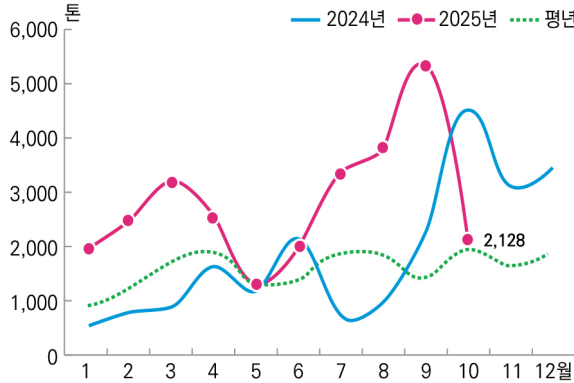
국가별로 수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중국, 미국, 태국, 스페인 등의 순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었다.

10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7,983톤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긴 연휴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8.3%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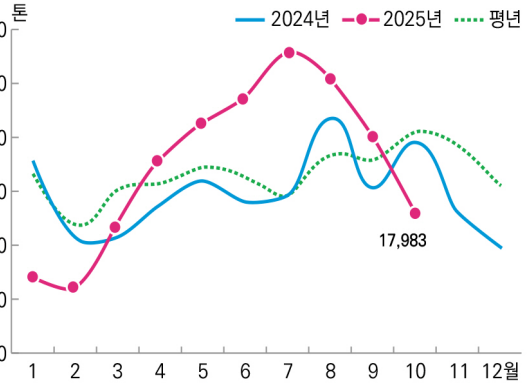
중국, 에콰도르 등에서 전월 대비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페루로부터의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페루의 대왕오징어 쿼터가 재조정되면서 다시 늘었으나,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페루산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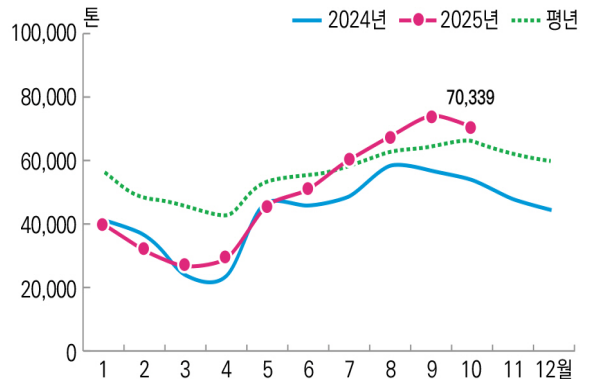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0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5% 감소)

10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연근해산 생산 감소 및 원양산 반입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한 7만 339톤이었다.

특히 연근해산 생산이 크게 줄면서 연근해산 재고가 전월 대비 9.3% 감소했으며, 원양산은 3.5% 감소한 5만 3,335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1월호



10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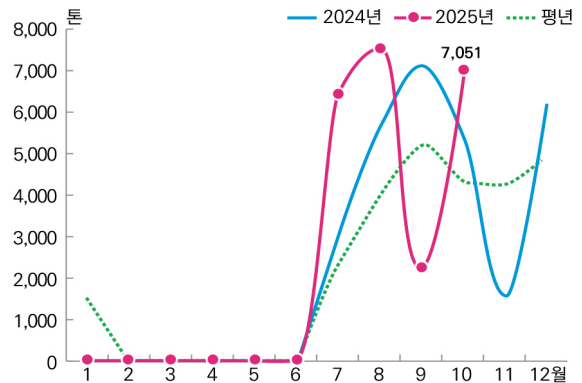
전년 대비 생산량 34% 증가, 수입량 33% 감소

❖ 생산동향(10월 원양명태, 전월보다 증가)

10월 원양명태 생산량은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7,051톤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33.5%, 64.5% 많았다.

이는 원양어선 1척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부산항에 모든 생산 물량을 양륙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9.7%, 33.3% 증가한 2만 3,279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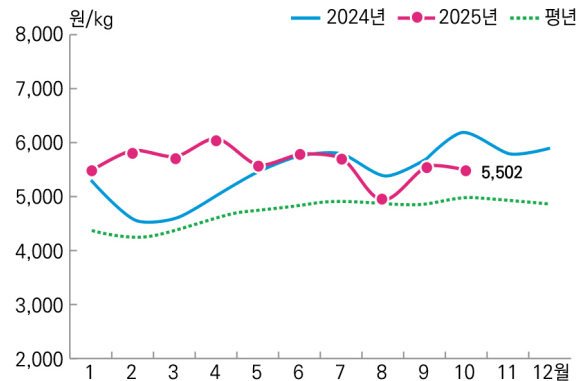


❖ 가격동향(10월 냉동명태 도매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5,502원)

10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1.6% 상승한 kg당 2,168원이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4.8%, 8.8%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502원으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전년 대비 11.6% 낮았다.

상순에는 할인행사로 전월보다 낮은 kg당 5,271원이었으나, 월말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수출입동향(10월 러시아산 수입 감소, 수출은 증가)

10월 명태 수출량은 높은 국제 가격으로 인해 수출 수요가 많아 전월 및 전년 동월보다 각각 32.1%, 54.6% 증가한 1만 2,757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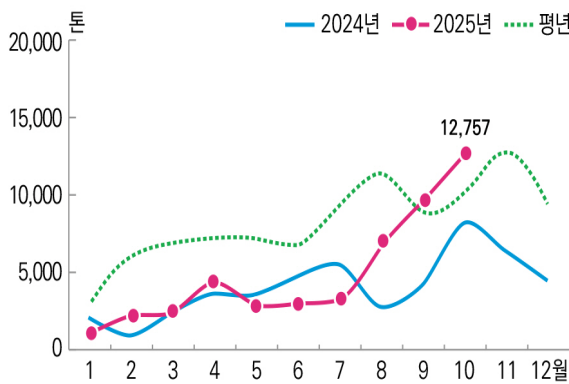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와 냉동연육은 중국으로 각각 4,254톤, 5,944톤이 수출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명태 재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명태 수입량은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 감소로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각각 45.3%, 32.9% 적은 2만 7,652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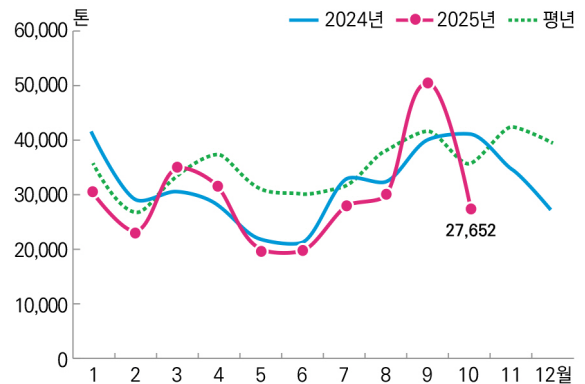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7,687톤, 미국산 냉동연육 6,441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4,103톤이었다.

10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29만 5,231톤으로 작년보다 28.3% 많았으나, 평년에 비해 37.2%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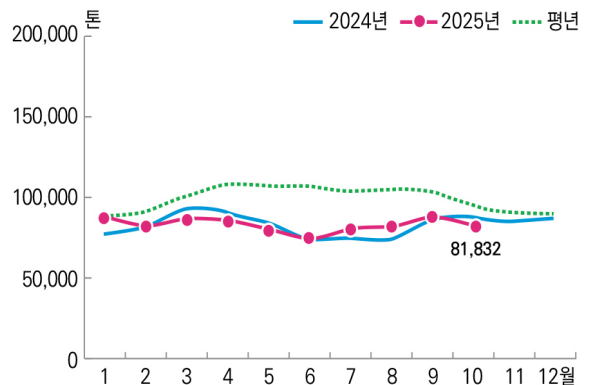


❖ 재고동향(10월 재고량, 전월 대비 8% 감소)

10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각각 9.6%, 7.5% 감소한 8만 1,832톤이었다.

이는 러시아산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냉동명태 수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각각 9.6%, 14.5%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관측 11월호



우리나라, 남극 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외상 공고히 해 유일하게 어업규범 100% 이행국가로 인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 조약 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설립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체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로, 조업선박은 끊임이 없이 조업할 수 있어 효율적이나 전제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총회(최고의사결정 기구), 이행위원회, 재정위원회 각 2인, 과학위원회 3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전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상무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상무	총괄(겸직)
		김효상 차장	기획
		조성주 과장	홍보
김민재 주임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김영수 과장	총괄
		최은혁 대리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조성환 과장	총무, 회계
		이인수 사원	서무관리, 차량운영
			원양어업경영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박재운 부장	총괄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백상진 대리	참치선망
		김지원 사원	참치연승
경영지원본부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최상진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김영진 사원	북양, 콩치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경영지원본부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센터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유통센터	이승두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김선미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명예수산물관
	-	044-868-7838	통계, OFIS

센터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유통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명예	성명	연락처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senegalkim@gmail.com 221-33-853-0850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ckpfj@naver.com 679-330-7188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scpark@top-bridge.com 62-21-2287-4165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seajho@xtra.co.nz 64-3-344-1617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kmarinelee@gmail.com 230-217-1700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kargeexport@gmail.com 54-223-495-0712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skshipatrica@yahoo.com 233-303-200995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jc651016@gmail.com 675-321-8137
	사모아	허성립 수산물관 dldms8424@naver.com 1684-258-9900

발행	2025년 11월 15일
원양산업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제1187호	등록번호 서초라-00012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